

# 中小都市의 經濟機能 및 成長潛在力 分析

(An Analysis on the Economic Function and the Growth Potentiality of Small & Medium Cities)

金 基 玉

(順天市長, 行政學博士)

## 〈目 次〉

- I. 序 論
- II. 中小都市의 經濟機能 分析
- III. 中小都市의 經濟基盤 및 成長潛在力 分析
- IV. 結 論

## I. 序 論

### 1. 研究目的

1962年以後 持續的인 經濟成長政策은 貧困의 追放이라는 刮目할 만한 成果를 가져왔으나 經濟的 效率性 위주의 據點開發政策으로 인하여 都市의 問題와 非都市의 問題들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즉, 成長潛在力이 크고 機能的 優位에 있는 大都市와 그렇지 못한 地方中小都市간에는 不均衡이 深化되고 大都市에의 人口集中과 급격한 都市膨脹은 假都市化現象(pseudo-urbanization)과 過密·過疎地域의 出現이라는 새로운 問題를 안겨주고 있다.

더구나 都市로의 人口移動은 相對的으로 期待收益이 큰 일부 大都市에 集中됨으로써 광범위한 給付行政과 雇傭政策을 要求하는 등 都市政

府에 커다란 壓迫要因이 되어왔고 이는 소위 “Todaro 效果”<sup>1)</sup>를 誘發하여 人口集中의 惡循環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大都市의 過密現象은 混雜費用(congestion)의 發生과 生活環境의 惡化로 이미 集積利益(agglomeraton economies)을 創出하는 段階를 넘어서 集積不利益(agglomeration diseconomies)이 發生되고 있는 반면 地方中小都市는 아직도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를 充分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난 20여년간 “地域開發”이라는 概念은 “經濟開發”이라는 概念과 同義語로 認識될 만큼 地域計劃에 있어서 經濟的인 측면이 重視되어 왔으며 그 결과 都市間 또는 中央과 地方간의 隔差問題는 불가피하게 發生되어 왔고 “豊饒속에 貧困”이라는 社會的 問題까지 提起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물론 이러한 現象은 우리나라

1) “Todaro效果”란 大都市에서 人口流入에 따른 失業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雇傭政策을 쓰게되면 雇傭機會의 增大로 期待所得이 增大되고 이는 다시 人口流入의 誘因을 提供하게 되어 都市失業問題와 社會問題는 惡循環을 겪게 됨을 意味한다. (M.T. Todaro: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s Review*, Vol. 59, 1969, pp.138~148.

2) C. Gore, *Regions in Question* (London: Methun and

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發展初期에 있는 社會에서 一般的으로 보여지는 現象이라 할 수 있다.<sup>3)</sup> 문제는 發展過程에서 나타나는 地域間 社會階層간의 隔差와 大都市로의 集中現象이 發展을 위한 必然의인 過程인가 또는 地域政策이나 社會的 選擇(social choice)의 過程을 通하여 回避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 國家들의 比較的 빠른 經濟成長과 함께 大都市의 類例없는 人口成長, 農材人口의 都市地域으로의 大規模 流入, 低所得 勤勞所得層들의 都市流入으로 인한 都市地域의 貧民街 增大 및 不良無許可居住등에 따른 都市環境惡化 등의 都市問題解決을 위한 적절한 對策이 提示되어 實踐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시아 大都市 經濟發展 및 現代아시아 文明의 요람인 都市의 社會發展을 不安하게 하는 要因이 될 수 있다는 事實에 따라 「미다가 宣言」<sup>4)</sup>이 採擇되었다. 이 宣言은 大都市의 開發, 保全에 重點을 둔 都市計劃樹立 및 管理에 관한 3大 基本前提와 實踐要綱으로서 아시아 各國 政府에 대한 6個 要求事項 그리고 6個項目에 걸친 國際機構의 都市發展을 위한 支援役割을 強調하고 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경우 資源과 技術蓄積이 상대적으로 未盡했던 지난 1960年代 초에 있어서

는 全國을 均衡있게 開發投資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不均衡成長論者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開發潛在力이 큰 일부 特定都市와 그 周邊地域을 集中的으로 開發함으로써 成長의 波及效果가 周邊地域으로 擴散되도록 유도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成長의 果實이 現實的으로 周邊地域으로 波及되어 왔는가 하는 점으로 N. Hansen 教授가 指摘했듯이<sup>5)</sup> 초기의 據點成長政策은 兩大核인 서울과 釜山近郊의 일부 工業都市(仁川, 富川, 蔚山, 馬山 등)에만 波及되었을 뿐 그 效果가 全國的으로 擴散되지 못하여 地域間的 成長隔差를 擴大시켜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提起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大都市와 地方中小都市의 過密·過疎問題 그리고 이들 地域間的 成長隔差 및 均衡開發의 문제가 커다란 社會的 「이슈」로 登場하게 됨에 따라 1982년 부터 施行하고 있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과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 및 1983년 制度化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한 「農村工業開發施策」에서는 地域間, 社會階層間的 不均衡을 是正하고 人口의 地域定着을 誘導하기 위하여 地方中小都市의 發展 즉, 그 機能의 活性化에 큰 比重을 두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地域計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政策上의 主要觀點이 變化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效率性(efficiency) 위주에서 衡平性(equity) 위주로 즉, 開發行政에서 福祉 및 給付行政으로의 변모를 의

Co. Ltd., 1984), p.19.

3) A.W. Alonso, "Five Bell Shapes in Development,"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45, 1980, p.5. Alonso는 一般的으로 發展初期에는 地域間階層間的 격차와 人口集中 등 諸般現象의 進行이 급격이 進行되다가 어느 段階를 넘어서면 그 速度가 鈍化되는 鍾型曲線의 특징을 가진다고 說明했으며 다음의 5가지 類型을 提示하고 있다.

i) social inequality, ii) regional inequality, iii) development stages, iv) geographic concentration, v) demographic transition.

4) 미다가宣言: 1985. 8. 29 UN 技術協力 및 開發國(UN-DTCD N.Y)과 UN 地域開發센터(UNCRD NAGOYA) HABITAT NAIROBI 共同主催로 열린 "21C를 向한 아시아 大都市의 課題와 挑戰" Seminar에서 채택된 都市開發 宣言.

5) N. Hansen, "Infrastructure and Secondary Cities in Spatial Decentralization Strategies," Korea-U.S. Seminar on Urban-Regional-Transportation Development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985.

미”하며 이는 反都市代(counter-urbanization)<sup>6)</sup> 또는 集中反轉(polarization reversal) 現象<sup>7)</sup>과 그 脈을 같이 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地域間隔差를 解消하고 地方中小都市를 活性化시킬 수 있는 最適의 時期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地域政策遂行에 있어서 集中反轉에 대한 認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集中開發傾向이 강한 초기보다는 集中反轉이 시작되는 시기에 分散政策을 實施하는 것이 보다 成功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9)</sup>

中小都市의 經濟基盤을 強化하고 周邊地域에 대한 中心地的 機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物理的構造의 變化나 地理的 空間의 擴大만으로 이들 都市가 지니고 있는 構造의인 問題點을 解決하는 데 限界가 있으며 따라서 각 都市의 成長의 性格과 機能의 特性 그리고 이들 都市가 지니고 있는 成長潛在力을 分析·評價하고 分析結果를 效率의으로 受容하기 위하여 行·財政政策을 어떻게 誘導하여야 하는가 하는 課題가 先決되어야 한다.

## 2. 研究範圍 및 方法

### 가. 研究의 空間的 範圍

6) B.J.L. Berry, *The Counter-Urbanization Process: How General?*,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Lexenberg Austria, 1976), pp. 261~265.

7) H.W. Richardson, "Polarization Reversal in Development Countries," *Paper of the Regional Sciences Association*, Vol. 45, 1980, pp. 67~85.

8) B. Renaud는 韓國에 관한 그의 論文에서, i) 地域間 成長指標가 類似하고 ii) 主都市가 차지하는 GRP의 比重이 줄어들고 있으며, iii) 地域間 收入이 비슷해지고 iv) 宗主都市로만 向하면 人口流入傾向이 變化되고 있다는 점에서 韓國의 경우 1970年代末부터 counter-urbanization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C.B. Renaud, "Economic Structure Growth and Urbanization in Korea": in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on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Honolulu, Hawaii, 1977).

9) H.W. Richardson, *op. cit.*, pp. 4~5.

本 研究의 對象이 地方中小都市이므로 研究의 空間的範圍는 人口規模 5萬~20萬이하의 中小都市(1986. 1. 1 현재 44 個市)로 限定하였다.

그러나 中小都市에 관한 諸般事項을 分析하기 위해서 大都市와의 機能的 連繫나 전체 都市속에서의 中小都市의 特性 또는 役割 등 전반적인 都市體系下에서 比較·評價되어야 하므로 研究의 必要에 따라 62 個 法定都市(1 特別市, 4 直轄市, 57 個市) 전체가 分析에 包含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邑級 小都市(1986. 1. 1 현재 199 個邑)는 資料求得上의 制約으로 研究對象에서 除外하였다.

中小都市를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接近方法이나 研究目的에 따라 見解가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히 人口規模나 地理的 範圍의 大小에 따라 劃一的으로 小都市, 中都市, 大都市 또는 百萬都市로 區分하는 것은 問題가 있으며, 都市階層上의 相對的 位置나 經濟圈등 여러 요인을 考慮하여 設定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受當한 견해이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中小都市를 어떻게 定義하는가 하는 점이 研究結果에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므로 단순히 人口規模에 따라 20萬이하의 都市로 設定하였다.

### 나. 研究의 時間的 範圍

時系列상 원칙적으로 1970~1985년으로 設定하되, 中小都市의 經濟機能 및 成長潛在力分析은 우리나라에서 過密·過疎問題가 社會的 「이슈」로 提起되었던 1970年代 中盤 즉, 1976년부터 1984年으로 限定하였고 比較分析의 경우 이 兩年度를 比較時點으로 設定하였다.

### 다. 研究方法

우리나라 都市의 經濟機能과 成長潛在力을 經驗的으로 分析하여 機能의 特性과 潛在力을 究明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分析方法을 應用하

였다.

經濟的 分析에 있어서는 都市經濟機能을 分析하기 위하여 Nelson의 標準偏差法과 立地商(location quotient), 特化係數(coefficient of specialization), 類似性係數(coefficient of similarity)를 1976年과 1984年의 2個時點에서 分析하였고 그간의 變遷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雇傭再偏係數(coefficient of environmental redistribution)를 推定하였다.

그리고 中小都市의 經濟基盤과 成長潛在力을 分析하기 위하여 經濟基盤模型(economic base model)과 成長率示差模型(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model)을 利用하여 各 都市의 基盤乘數(economic base multiplier)와 成長示差를 導出하였으며 變化의 過程을 觀察하기 위하여 靜態分析과 함께 動態分析을 병행하였다.

中小都市의 經濟機能과 成長潛在力을 分析하는데 使用한 資料는 勞動部의 「事業體勞動實態 調查報告書(1984)」상의 都市別·產業別 雇傭者數를 使用하였다.

라. 研究結果의 論述範圍

여기에서는 위의 각 模型에 의한 우리나라 中小都市의 經濟的特性 및 成長潛在力의 分析結果만을 論述하고 이 結果에 따른 行·財政 및 地域經濟의 戰略과 中小都市開發의 政策代案은 차후의 기회에 發表코자 한다.

II. 中小都市의 經濟機能 分析

1. 經濟機能의 集中度

各 都市의 經濟機能이 特定產業에 얼마만큼 專門化되어 있는가를 研究하는 方法으로 標準偏

〈表 II-1〉 產業別 雇傭平均 및 標準偏差

① (1976년)

産業別 區分	3	製 造 業									4 電氣 가스 水道 業	5 建設 業	6 都小 賣業 宿泊 業	7 運輸 倉庫	8 金融 保險	9 서어 비스
		31 음식 료업	32 섬유 의류	33 가구 류	34 종이 인쇄	35 섬유 화학	36 비금 속	37 철강 금속	38 기계 장비	39 기타						
平均(M)	69.68	4.88	25.42	2.28	2.79	9.39	2.33	2.06	16.70	3.80	0.63	2.70	4.93	8.56	4.46	5.32
標準偏差 (SD)	23.61	10.37	16.42	3.74	2.73	8.64	3.57	7.40	13.30	3.55	1.78	3.67	4.57	10.43	2.90	5.64
M+1SD	93.29	15.25	41.87	6.02	5.52	18.03	5.90	9.46	30.00	7.35	2.41	6.37	9.50	18.99	7.36	10.96
M+2SD	116.90	25.62	58.29	9.76	8.25	26.67	9.47	16.86	43.30	10.90	4.19	10.04	14.07	29.42	10.26	16.60
M+3SD	140.51	35.99	74.71	13.5	10.98	35.31	13.04	24.26	56.60	14.45	5.97	13.71	18.64	39.85	13.16	22.24

產業別 雇傭平均 및 標準偏差

② (1984년)

産業別 區分	3	製 造 業									4 電氣 가스 水道 業	5 建設 業	6 都小 賣業 宿泊 業	7 運輸 倉庫	8 金融 保險	9 서어 비스
		31 음식 료업	32 섬유 의류	33 가구 류	34 종이 인쇄	35 섬유 화학	36 비금 속	37 철강 금속	38 기계 장비	39 기타						
平均(M)	58.60	4.12	18.79	1.60	2.63	7.28	2.57	1.42	17.92	2.27	0.65	5.44	8.11	9.40	7.29	7.82
標準偏差 (SD)	25.74	8.20	14.60	2.98	2.35	5.45	3.75	5.79	18.10	2.99	1.06	5.87	6.58	9.86	3.98	6.95
M+1SD	84.34	12.32	33.39	4.58	4.98	12.76	6.32	7.21	36.02	5.26	1.71	11.31	14.69	19.26	11.27	14.77
M+2SD	110.08	20.52	47.99	7.56	7.33	18.18	10.07	13.0	54.02	8.25	2.77	17.18	21.27	29.12	15.25	21.72
M+3SD	135.82	38.72	62.59	10.54	9.68	23.63	13.82	18.79	72.12	11.24	3.83	22.95	27.85	38.98	19.23	28.67

〈表 II-2〉

都市別 産業集中度

都市別	區分	年平均人口 成長率 (1976~ 1984)	1976年			1984年		
			M+18D ~M+28D	M+28D ~M+38D	M+38D 超 過	M+18D ~M+28D	M+28D ~M+38D	M+38D 超 過
백 만 도 시	서울	3.02				도소매, 금융· 보험, 숙박업		
	부산	3.52	석유·화학				석유·화학	
	대구	4.67	섬유·의류			섬유·의류		
	인천	4.93		가구류		기타		가구류
	광주	3.82	운수·창고	서비스		건설업·운수· 창고·서비스		
대전	5.48	금융·보험·서 서비스·종이· 인쇄						
대 도 시	울산	8.21	석유·화학	기계·장비				
	마산	2.87	기계·장비					
	성남	4.87		기타		음식료업	기계·장비	
	전주	3.06	운수·창고·금 용·보험·서 서비스			운수·창고	기 타	
	수원	5.96						
	부천	13.97	제조업·비금속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장 비	
	청주	5.38	섬유·의류					
	안양	9.03	제조업			종이·인쇄		
	포항	6.13	섬유·의류	건설업		철강·금속	금융·보 험	철강·금속
	목포	1.86	음식료업, 서 서비스, 금융·보 험		비금속			비금속
진주	3.99	기계·장비						
중 소 도 시	제주	3.86	전기·가스·수 도	금융·보험· 서비스·매 속·소박업				
	이리	5.23				섬유·의류		기타
	군산	1.57		농림·어업	가구류	종이·인쇄		농림·어업 가구류
	여수	3.29	금융·보험		음식료업	도소매·숙박업 운수·창고	음식료업	농림·어업
	춘천	1.91	도소매·숙박업 운수·창고·금 용·보험			도소매·숙박업 운수·창고		
	천안	5.19				섬유·의류·비 금속		
	원주	2.21	금융·보험·서 서비스			도소매·숙박업 서비스		
	의정부	3.18	섬유·의류·종 이·인쇄·기타			종이·인쇄·건 설업		
	경주	2.13	도소매·숙박업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숙박업		
	강릉	4.11	도소매·숙박업	전기·가스		도소매·숙박업	운수·창고	

都市別	區分	年平均人口成長率 (1976~1984)	1976年			1984年		
			M+18D~ M+28D	M+28D ~M+38D	M+38D 超 過	M+18D~ M+28D	M+28D ~M+38D	M+38D 超 過
중	진해구	2.06	서비스	수도·운수 창고	석유·화학	제조업·섬유· 의류·기계·장 비	석유·화학	
		6.70	운수·창고 제조업	기계·장비				
소	충주	1.46	제조업·운수· 창고·서비스	금융·보험	농림·어업	운수·창고·서 서비스	건설업	
		0.89						
소	안동	1.55	전기·가스·수 도·운수·창고 서비스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도소매·숙박업 운수·창고·금 융·보험·서어 비스	건설업	
		2.59						
도	김천	1.29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운수·창고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0.05						
시	속초	0.97	금융·보험·농 림·어업·서어 비스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0.97						
시	광명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창원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태백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등해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제천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영주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서귀포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경주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김해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동두천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송탄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나주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남원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시	원천	0.97	제조업·전기· 가스·수도업	도소매 숙박업	음식료업	서비스	종이·인쇄 기	건설업

差의 概念을 利用하여 分析하는 方法이 Nelson 에 의해 適用된 이래 國內外의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都市分類의 한 方法으로 適用되어 왔다.

이 方法은 全體都市의 産業別 平均(M)과 標準偏差(SD)를 구하여 各 都市가 平均에서 얼마만큼 偏倚되어 있는가를 調査하고 産業別 偏倚

의 程度에 따라 都市機能의 專門化 程度를 判別하는 方法이다.

〈表 II-1〉은 1976年과 1984年의 우리나라 全體都市에 대한 産業別 雇傭平均과 標準偏差를 나타내고 있으며, 都市産業別 集中度〈表 II-2〉는 〈表 II-1〉에서 구한 標準偏差의 범위에 따라 各都市가 어떤 産業에 特化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M+2SD 이상의 경우에는 그 産業의 特化도가 매우 큼을 의미한다.

都市別 集中度 〈表 II-2〉 分析에 의하면, 人口規模 10~20萬의 中都市의 경우에는 裡里, 群山, 鎭海, 龜尾 등 일부 工業都市를 제외하고는 3個分野 이상에서 特化되어 複合機能都市 즉 綜合的 都市機能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現象은 이들 都市가 주변 農村地域에 中心地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 地域開發과

農村地域의 서어비스機能을 強化하기 위하여 12個의 中都市를 2次 成長處點都市로 選定한 것은 이들 都市의 機能的 特性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複合機能의 中都市와 人口規模 10萬 이하의 小都市는 대부분 都小賣業이나 運輸·倉庫·서어비스業 등 都市의 基礎需要部門에서만 特化되어 巨大都市의 경우와는 달리 自生的 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沈滯現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 産業構造가 多樣化되어서 特定産業에 專門化된 경우는 없으며 다만 都小賣·宿泊業과 金融·보험업 등 都市「서어비스」産業의 比重이 增加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釜山과 大邱는 각각 非金屬과 섬유유산업의 特化도가 높으며 이러한 傾向은 1980年代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表 II-3〉 中小都市의 産業別 集中度分析

年 度	1 農林漁業	2 鑛業	3 음료	MANt					5 建設業	6 都小賣宿泊業	87 運輸業倉庫	9 서어비스															
				31 섬유류	33 가구류	34 종이류	35 석유류	36 비금속					37 철강류	38 기계류													
1976	군중속 삼주초		목여순중속삼천 포수천부초포 청안의대 주양부구	인군	천산	안의대	양부전	울진부	산해산	부목삼천	천포포	포	항	울마부진구김	산산천미천	포정안	항주동	제춘경장속	주천주동초	전제춘경장순안김광	주천릉해천능천주	전북제원경장순안서광대	주모주주릉천동포주전				
1984	제군여 주산수	태제	백천 성여중삼동	남수부포해	이천구김대	리안미해구	인성군	천남산	안군의진영	양산부천천	울진나부	산해주산	목천농영	포안해천	포	항	울마부구창송	산산천미원탄	의중속동나광	정두	부부초천주주	제춘원경장순속영서서	주천주주릉천초주포을	전제춘경장순동영서정남영광	주주천릉주천해주포주원천주	제원흥순안김계영정영광	주주주천동천천주추천주

(表 II-4)

都 市 別 立 地 商 (1976年)

産業別 都市別	製 造 業																		
	1 農林 漁業	2 鑛業	3 計	31 음식 료업	32 삼유 의류	33 가구 업	34 중이 인쇄	35 석유 화학	36 비금 속	37 철강 금속	38 기계 장비	39 기타	4 電氣 가스 水道	5 建設 業	6 都小 費宿 泊	7 運輸 倉庫	8 金融 保險	9 서어 비스 業	
서울	0.43	0.07	0.97	1.02	0.90	0.34	1.41	0.79	0.66	0.61	1.14	1.56	0.60	0.92	1.78	0.89	1.32	1.20	
부산	0.55	0.05	1.13	0.75	1.13	2.22	0.46	2.29	0.52	1.74	0.74	0.32	0.56	1.23	0.41	0.93	0.87	0.56	
대구	0.09	-	1.12	0.48	1.90	0.16	0.63	0.43	0.21	0.44	0.99	0.79	0.70	0.89	0.75	0.96	0.48	0.96	
인천	0.05	0.37	1.24	0.77	0.90	5.66	0.33	0.81	1.52	2.45	1.42	1.61	1.00	0.34	0.63	0.82	0.57	0.42	
광주	0.18	-	0.61	0.77	0.81	0.31	0.97	0.25	0.25	0.12	0.78	0.10	1.98	1.03	1.25	2.61	1.36	3.13	
대전	0.34	-	0.95	0.64	1.41	0.24	2.20	0.54	0.99	0.30	0.46	1.18	3.19	0.37	1.37	1.33	2.00	3.08	
울산	-	-	1.16	0.60	0.49	0.13	0.20	1.94	0.36	0.81	2.65	-	2.17	0.10	0.56	1.29	0.33	0.39	
마산	0.41	-	1.25	0.79	1.15	0.04	0.76	0.97	0.82	1.23	2.13	0.76	1.17	0.16	0.27	0.54	0.44	0.63	
성남	-	-	1.28	2.27	1.05	1.16	0.95	0.90	0.30	0.09	1.44	3.38	0.25	0.03	0.24	0.68	0.20	0.47	
전주	0.98	0.11	0.59	1.25	0.78	0.48	0.88	0.57	0.66	0.22	0.09	0.78	0.25	2.13	1.17	2.47	2.02	2.98	
수원	0.05	-	1.13	0.43	1.58	0.13	0.80	0.17	2.36	0.08	1.38	1.03	2.13	0.54	0.47	1.05	0.72	0.68	
부천	0.47	-	1.39	0.62	0.70	0.63	0.85	1.13	3.60	3.26	2.02	3.28	-	-	0.04	0.25	0.02	0.08	
청주	0.77	0.05	0.98	0.69	1.88	0.15	0.49	0.27	0.65	0.01	0.12	0.57	1.68	0.84	0.26	1.74	1.22	1.11	
안양	-	0.09	1.38	0.26	1.69	0.67	4.40	1.53	1.31	0.09	1.21	0.14	-	0.04	0.11	0.28	0.01	0.08	
포항	0.21	-	0.90	0.75	0.08	0.01	0.02	0.97	0.60	21.51	0.15	-	0.76	4.62	1.08	1.32	0.70	0.77	
북포	4.49	0.05	0.74	3.28	0.23	0.62	0.39	0.68	6.13	0.11	0.29	0.52	1.71	0.56	1.58	1.76	1.67	2.09	
전주	0.64	-	0.95	0.64	0.76	1.41	1.12	0.38	0.47	0.05	1.89	0.30	1.68	0.79	0.47	2.03	0.74	1.35	
제주	6.99	-	0.28	1.32	0.14	0.59	0.73	0.28	0.29	0.04	0.14	0.15	4.48	1.28	3.67	3.09	2.29	2.48	
이리	6.37	-	1.02	-	-	-	-	-	-	-	-	-	1.37	0.15	1.09	0.72	0.84	1.29	
군산	14.8	0.94	0.92	1.92	0.29	8.44	1.99	1.56	0.13	0.29	0.40	0.03	2.10	0.44	1.08	0.63	0.73	0.79	
여수	3.26	-	0.79	7.52	0.27	0.83	0.21	0.19	0.97	0.48	0.25	-	1.60	0.22	1.42	1.91	1.81	1.63	
춘천	0.06	-	0.67	0.68	1.29	0.24	0.97	0.28	0.06	0.29	0.21	0.12	1.79	0.79	2.49	2.29	1.76	1.94	
천안	0.38	-	1.17	0.91	1.84	0.06	0.86	0.69	2.00	0.05	0.85	0.64	-	-	0.27	1.29	0.32	0.80	
원주	0.44	-	0.73	1.29	0.79	1.21	2.76	0.19	0.46	-	0.37	1.23	1.63	0.15	1.88	1.91	1.73	2.66	
의정부	-	-	1.20	0.30	2.08	0.12	2.89	0.91	0.15	-	0.19	2.31	-	0.07	0.57	0.82	1.01	0.35	
경주	-	0.06	0.42	1.30	0.46	0.50	0.16	0.36	1.82	0.31	0.05	0.20	2.75	5.90	2.82	1.90	1.42	3.05	
강릉	1.21	0.09	0.28	1.41	0.26	0.17	0.22	0.08	0.05	-	0.16	0.38	2.44	0.60	2.78	4.55	1.32	2.70	
선해	3.48	-	0.89	1.75	-	-	-	4.88	1.42	0.56	0.18	-	1.65	0.13	0.17	2.97	0.41	1.05	
구미	0.05	-	1.37	0.24	1.63	-	0.11	0.22	0.68	-	2.87	0.22	0.33	0.08	0.25	0.08	0.39	0.11	
충주	52.09	-	0.40	0.20	0.21	0.23	0.06	1.71	1.71	0.09	0.01	0.16	1.03	0.35	0.45	1.66	0.43	1.25	
순천	1.57	-	0.44	3.82	0.01	0.65	1.55	0.37	-	-	0.13	-	13.63	0.66	1.11	3.18	2.33	2.76	
안동	-	-	0.51	0.45	0.48	0.29	0.04	1.31	0.41	0.26	0.39	-	4.75	4.46	0.53	2.88	1.63	2.79	
충무	2.37	0.66	0.98	6.36	0.51	1.99	0.33	0.15	0.61	0.22	0.89	0.15	2.79	0.26	0.99	0.49	1.89	1.48	
김천	0.92	-	0.72	0.70	0.23	0.65	-	0.15	0.17	0.19	0.81	1.80	-	-	0.26	3.61	1.35	2.06	
속초	10.92	-	0.49	4.91	0.17	0.13	0.20	0.20	-	-	0.16	-	6.08	0.66	2.89	2.10	1.70	2.00	
삼천포	2.64	-	0.99	8.07	0.23	0.32	-	0.15	6.85	-	0.34	-	-	0.22	0.07	1.25	0.73	2.62	



〈表 II-5〉 都 市 別 立 地 商 (1984年)

産業別 都市別	1	2	3	製 造 業								4	5	6	7	8	9	
	農林 漁業	鎭業	計	음식 료업	섬유 의류	가구 업	중이 인쇄	석유 화학	비금 속	천강 금속	기계 장비	기타	電氣 가스 水道	建設 業	都小 賣 宿泊	運輸 倉庫	金融 保險	서어 비스 業
서울	0.36	0.06	0.80	0.88	0.84	0.33	1.54	0.72	0.58	0.30	0.73	1.11	0.80	1.23	1.94	0.98	1.68	1.08
부산	1.00	0.01	1.23	0.85	1.57	1.06	0.43	2.56	0.39	1.07	0.75	0.72	0.25	0.58	0.51	1.20	0.57	0.57
대구	0.03	0.01	1.18	0.44	2.37	0.56	0.65	0.39	0.36	0.27	0.77	1.01	0.46	0.75	0.53	1.09	0.68	0.90
인천	0.05	0.31	1.31	1.08	0.74	6.72	0.33	0.87	1.04	2.46	1.59	2.62	0.62	0.34	0.51	0.66	0.47	0.82
광주	-	0.01	0.46	0.56	0.48	0.50	0.62	0.26	0.32	0.01	0.56	0.09	1.32	2.48	1.63	2.20	1.15	2.11
대전	0.03	-	0.97	0.58	1.57	0.31	1.68	0.76	0.81	0.35	0.57	0.86	1.14	0.77	1.12	1.22	1.00	1.29
울산	0.90	-	1.36	0.42	0.24	1.78	0.13	1.59	0.12	1.61	3.11	-	1.23	0.45	0.39	0.70	0.37	0.55
마산	0.08	-	1.21	0.53	0.78	0.18	0.38	0.31	0.24	1.25	2.61	0.54	0.75	0.29	0.66	1.06	0.62	0.94
성남	-	0.03	1.44	0.56	1.48	2.99	1.21	1.31	0.12	-	1.32	3.76	0.29	0.27	0.43	0.47	0.28	0.53
전주	-	0.08	0.59	0.74	0.92	0.43	1.50	0.63	0.69	-	0.11	0.61	1.65	0.94	1.72	0.34	1.25	1.77
수원	0.02	0.05	1.13	0.57	1.07	0.20	0.64	0.58	1.02	-	1.89	0.44	0.66	0.56	0.81	0.76	0.93	1.25
부천	0.02	0.03	1.53	0.60	0.73	1.53	0.89	1.70	1.65	0.93	2.55	2.27	0.14	0.31	0.24	0.20	0.21	0.39
청주	0.07	-	1.08	1.31	1.34	0.07	0.85	0.57	1.02	0.13	1.30	0.11	1.34	0.38	0.47	1.24	1.08	1.32
안양	-	0.14	1.25	0.87	1.16	0.30	2.68	1.44	0.88	0.25	1.46	0.37	0.42	0.62	0.51	0.83	0.65	0.81
포항	-	0.01	0.99	0.15	0.02	0.18	0.06	0.25	1.21	28.81	0.60	0.09	0.37	1.53	0.39	1.11	2.05	0.60
북부	5.46	0.16	0.79	2.33	0.41	0.41	0.37	0.81	6.95	-	0.20	0.59	0.88	0.64	1.37	1.87	0.66	1.64
진주	0.14	0.09	0.94	1.13	0.49	0.54	1.22	0.49	1.15	-	1.69	0.25	1.35	0.60	0.57	1.89	0.93	1.43
광명	-	-	1.12	0.89	0.87	0.73	1.00	0.68	0.88	0.18	1.66	2.00	0.78	1.08	0.52	1.52	0.82	0.47
계수	8.00	0.08	0.14	0.93	-	-	0.64	0.08	0.27	-	0.07	-	3.42	1.97	2.41	2.89	1.63	1.98
이리	0.03	-	1.18	1.45	1.89	0.21	0.33	0.30	0.58	-	0.54	5.82	1.00	0.22	0.83	0.80	0.43	1.48
달산	25.51	0.13	0.85	1.49	0.26	11.48	2.03	0.99	1.93	0.90	0.10	0.10	2.14	0.40	1.44	1.01	0.35	0.94
여수	19.66	-	0.66	5.97	0.01	0.45	0.04	1.26	0.41	-	0.15	-	0.83	0.95	1.22	1.81	0.98	1.30
춘천	-	0.03	0.47	1.22	0.46	0.78	1.43	0.44	0.22	-	0.28	0.02	1.97	0.78	2.35	2.37	1.51	1.87
천안	0.19	-	1.18	1.94	1.90	0.39	1.11	0.70	3.09	0.15	0.47	-	1.00	0.50	0.71	1.36	0.54	0.65
원주	0.19	0.02	0.52	1.43	0.32	1.56	0.39	0.30	1.06	-	0.45	0.93	1.38	1.06	2.14	1.93	1.31	2.27

産業別 都市別	1 農林 漁業	2 鑛業	3 計	製 造 業									4 電氣 가스 水道	5 建設 業	6 郵小 賣宿 泊	7 運輸 倉庫	8 金融 保險	9 시어 비스 業
				31 음식 료업	32 섬유 의류	33 가구 업	34 종이 인쇄	35 석유 화학	36 비금 속	37 철강 속	38 기계 장비	39 기타						
의정부	-	-	0.89	0.49	1.57	1.75	2.74	0.36	1.17	-	0.25	0.93	1.46	2.10	0.38	1.66	1.01	1.18
창원	-	-	1.62	0.01	-	0.07	-	0.09	0.79	-	5.13	-	-	0.20	0.05	0.09	0.11	0.27
경주	2.29	-	0.64	3.11	0.65	0.34	-	0.14	1.82	-	0.35	-	2.00	0.34	2.37	1.93	1.10	1.55
강릉	-	0.07	0.25	1.21	0.22	0.14	0.11	0.17	0.46	-	0.13	0.07	3.75	0.67	2.32	3.98	1.38	1.66
진해	-	0.11	0.96	2.76	0.04	0.27	0.36	2.97	0.77	1.04	0.99	-	1.03	0.61	0.87	1.64	1.13	1.13
구미	-	-	1.57	0.01	2.16	0.04	0.13	0.31	1.13	0.06	2.52	0.35	0.20	0.19	0.13	0.12	0.27	0.31
충주	0.20	0.14	0.40	0.38	0.04	0.06	0.17	1.75	0.82	-	0.06	2.06	2.71	3.71	1.04	2.06	1.11	2.34
순천	-	-	0.32	2.61	0.04	0.75	0.07	0.22	0.88	-	0.11	-	6.20	0.83	1.98	2.60	1.73	2.54
태백	-	39.82	0.05	0.07	-	0.04	-	0.15	0.10	-	0.06	-	0.66	0.29	0.23	0.46	0.38	0.33
안동	0.15	0.07	0.45	0.59	0.15	2.16	0.03	0.99	0.34	-	0.48	0.50	2.65	0.90	1.33	1.94	2.02	2.92
동해	-	0.41	0.77	4.30	-	0.04	-	0.23	7.93	2.19	0.11	-	1.12	1.48	0.12	3.81	0.55	0.57
세천	-	5.80	0.48	1.71	0.20	0.29	0.56	0.65	0.23	-	0.57	-	4.51	0.30	1.33	1.99	1.45	1.90
영주	3.31	-	0.39	0.47	0.20	0.88	2.18	1.16	0.44	-	0.02	-	3.52	0.41	1.82	2.06	1.38	3.04
충무	-	-	0.89	5.96	0.17	0.31	0.05	0.20	0.06	-	1.20	0.19	2.20	1.39	1.27	1.26	1.14	1.10
서귀포	5.53	-	0.16	1.70	-	0.16	0.30	0.09	-	-	0.03	-	2.51	1.16	3.15	2.45	2.51	1.62
성주	-	-	0.31	1.52	0.09	0.54	0.10	0.04	0.10	-	0.46	-	5.68	1.51	1.24	2.74	1.41	3.09
김천	1.00	-	0.83	0.05	0.26	0.34	3.73	0.19	0.24	-	0.94	4.52	1.80	0.90	0.60	1.62	1.29	1.93
김해	-	-	1.39	1.25	2.58	0.60	1.75	0.80	2.19	-	0.45	1.27	0.94	1.23	0.10	0.80	0.21	0.15
속초	-	-	0.26	1.49	0.12	0.53	0.08	0.15	1.33	-	0.06	-	2.88	5.30	3.21	1.74	0.60	0.95
동두천	0.49	1.16	0.82	0.55	1.20	0.39	1.09	0.36	0.30	-	0.83	0.68	2.22	4.51	0.43	0.69	0.27	1.44
충탄	2.92	0.22	1.14	1.02	0.80	-	-	0.05	0.78	-	2.42	0.71	-	0.13	1.41	0.23	0.76	1.45
삼천포	-	-	1.05	11.19	0.11	0.22	0.19	0.41	2.02	-	0.24	-	0.37	0.17	0.80	1.69	0.70	1.28
나주	-	2.06	0.67	3.73	0.15	0.66	0.11	2.42	0.43	-	0.04	-	3.78	2.98	0.14	1.92	0.96	1.50
남원	-	-	0.83	0.79	0.60	2.31	-	0.32	1.20	-	0.86	4.13	4.22	0.54	0.41	2.23	1.25	1.60
영진	4.36	-	0.52	1.97	0.03	1.41	-	0.18	3.18	-	0.44	0.89	4.10	1.15	0.53	2.76	1.79	1.90

人口規模 20萬이상의 大都市中 蔚山, 馬山, 城南, 富川, 安養, 浦項 등 工業都市들은 대부분 製造産業의 한 두개 산업에 매우 높은 特化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年代에 와서도 같은 경향을 維持하고 있다. 특히 富川의 경우는 製造産業의 比重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政府의 工業化政策에 힘입어 급격히 成長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大都市中 光州, 大田, 全州 등 地方中心都市는 都市賣業이나 運輸·倉庫業, 金融·保險·서어비스業등 주로 都市支援産業에 特化되어 있어 周邊地域에 대한 中心地的 機能을 나타내고 있다.

〈表 II-3〉은 偏倚의 범위가  $M+2SD$  이상인 都市를 産業別로 分類한 것이다. 따라서 이 範圍안에 있는 都市들은 그 特化의 程度가 매우 큼을 나타낸다. 먼저, 林·漁業의 特化도가 높은 都市는 1976년에는 群山, 忠州, 束草, 1984년에는 濟州, 群山, 麗水로 對象都市가 일부 변화되고 있다. 鑛業의 特化도가 높은 都市는 太白과 堤川으로서 특히 太白市의 경우 鑛業의 構成比가 全體産業의 83.6%나 차지하고 있어 鑛山都市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製造業중 飲·食料産業의 特化도가 높은 都市는 木浦, 麗水, 忠武, 束草, 三千浦등 주로 해변가에 立地한 中小都市들이며, 纖維産業은 大邱, 淸州, 安養, 龜尾 그리고 家具産業은 仁川, 群山, 城南, 印刷業은 大田, 安養, 議政府, 金泉이 높은 特化도를 보이고 있다.

石油化學産業은 石油化學團地가 造成되어 있는 釜山, 蔚山, 鎭海가 높은 特化도를 보이며 金屬産業은 浦項이 그리고 機械裝備産業은 蔚山 馬山, 富川, 龜尾, 昌原등 大規模工業團地가 造成되어 있는 都市에서 높은 特化도를 보이고 있

다.

製造業의 경우 飲食料産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난 10여년동안 成長率이 높았던 일부 工業都市에 높은 特化도를 나타내고 있어 都市産業構造와 都市成長間의 相關性을 示唆해 준다.

建設業, 都小賣業, 運輸·通信業 등 都市關聯産業은 서울, 光州, 全州, 大田 등 中心都市와 工業團地가 造成되어 있지 않는 大部分의 中小都市에서 높은 特化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年代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中小都市의 경우 Fuchen Lo의 “效率性 模型”에서도 그 原因을 發見할 수 있으나<sup>10)</sup> 中小都市의 경우 製造産業의 比重이 미약하여 3次産業의 水準이 여타都市에 比하여 낮은 水準임에도 불구하고 相對적으로 높은 特化도를 나타내고 있는 問題點이 있다.

다음에는 立地商(location quotient)을 이용하여 각 都市의 專門化程度를 살펴보고자 한다.

立地商(L.Q)은 特定産業의 全國平均 構成比에 대한 地域産業의 構成比로 立地商이 1보다 크면 그 産業은 同一地域의 基本需要를 充足하고도 여분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外部地域으로 輸出하게 됨을 의미한다.

10) Fu-Chen Lo는 都市機能과 都市規模의 關係에 관한 “效率性 模型”을 設定하여 製造業과 3次産業이 都市規模에 따라 어떻게 變化하는가 하는 점을 說明하고 있다. 즉 3次産業의 效率性은 都市規模가 커짐에 따라 점차 擴大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製造業의 效率性은 都市規模에 따라 增大되다가 一定規模以上の 水準에서는 集積不經濟의 發生으로 쇠퇴하게 된다.

Fu-Chen Lo and Kamal Salih, “Rethink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ransformation of Rural-Urban Relation in Asia, New Dimensions of Spatial Development,” in Symposium of Regional Development Co-Sponsored by G.S.E.S & UNCRD, 1973, pp. 20~61

〈表 II-4〉, 〈表 II-5〉는 1976 年과 1984 年의 都市別 立地商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境遇, 종이·印刷業과 都小賣業, 宿泊業, 金融·保險業 등 都市型產業의 立地商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產業構成이 多樣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人口 100萬이상의 巨大都市중 成長率이 높은 釜山과 仁川은 製造業의 立地商이 높으며 특히 製造業中에서 家具產業과 化學·金屬等 그동안 產業成長率이 높은 部門에 特化되어 있으며 大邱의 경우 섬유산업의 立地商이 높아 최근에 纖維產業의 不況과 함께 成長率이 鈍化되는 原因이 되고 있다.

人口 20萬 이상의 大都市의 경우 光州와 全州를 제외하고는 製造業의 立地商이 部門別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石油, 化學, 金屬, 機械·裝備產業의 立地商이 높은 蔚山, 馬山, 城南은 그동안 政府의 重化學工業育成施策에 힘

입어 높은 成長率을 堅持해 왔다.

人口規模 20萬이하의 中小都市의 경우에는 각 都市의 立地의 特性이나 產業構造의 特性에 따라 상당히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富川, 安養 등 서울近郊의 大都市는 그동안 서울의 都市 成長에 힘입어 都市關聯產業이나 產業成長率이 높은 機械, 金屬, 化學產業에 特化되어 높은 成長速度를 보이고 있으며 昌原이나 龜尾 등 新工業都市는 政府의 工業政策에 힘입어 製造業體의 立地商이 높아 서울近郊의 工業都市와 함께 빠른 成長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昌原은 機械·裝備등 重工業分野에 높은 立地商을 보이고 있으며 龜尾는 섬유와 輕工業分野에 높은 立地商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나머지 中小都市들은 대부분 製造業의 立地商이 1以下이며 製造業中 몇몇 產業에서는 제법 높은 特化度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產業이 대부분

〈表 II-6〉 立地商(L. Q.) 2以上인 都市

年度別	産業別	1 農林水産		3 製造業								5 建設業	6 小都賣宿泊業	7 運倉	9 市														
		17.01	2.28	31 食品	32  섬유	33  家具	34  종이	35  化學	36  金屬	37  鐵鋼	38  機械	△4.95	22.91	4.29	12.62														
1976	海都市	목제이군여진흥총속	포주리산수해주무초	성목여순흥속삼천	남포수천부초포	대정	구부	부인군	산천산	대안원의정	전양주부	부진	산해	수부목천삼	임천포안포	이부포	천천형	올마부구	산산천미	전포경안	주향주동	제춘경강속	주천주릉초	광제춘계춘강진순김	주주주주천릉해천천	광대전제원강순안산	주전주주주릉천농포		
		1.63	2.75	4.53	2.78	2.17	5.99	3.42	8.07	1.91	7.70	16.39	13.61	8.02	9.36														
1984	海都市	목제이군여경영서송영	포주산수주포탄천	태제나	백천주	목여경진순동흥삼천	포주주해천해부포성	대구김	구미해	인성군안남	천남산농원	안군영의김	양산주부천	부진금	산해성	목천동김영	포안해해천	인포동	천향해	올마부송	산산천탄	광의총속동금	주부주초천성	제춘원전강서수	주천주주릉포초	광제춘강순동서경남	주주천릉천해포주원	광제원순안영정	주주주천동주주
		1.63	2.75	4.53	2.78	2.17	5.99	3.42	8.07	1.91	7.70	16.39	13.61	8.02	9.36														

※ 成長率은 1976 年의 경우 1970~1976 年間 年平均 雇傭成長率  
1984 年의 경우 1976~1984 年間 年平均 雇傭成長率

〈表 2-7〉 都市別 特化係數

都市 規模	區分 都市別		雇傭者數(人)		特化係數		都市 規模	區分 都市別		雇傭者數(人)		特化係數	
			1976年	1984年	1976年	1984年				1979年	1984年	1976年	1984年
백만 도시	서울	760,757	1,144,314	0.12	0.16	경주	경주	3,926	6,813	0.47	0.37		
	부산	357,200	483,725	0.18	0.22		강릉	4,375	8,069	0.55	0.47		
	대구	164,130	205,753	0.22	0.27		진해	3,635	5,644	0.59	0.29		
	인천	112,789	195,352	0.21	0.25		구미	31,142	48,278	0.45	0.47		
대 도 시	광주	33,521	62,028	0.25	0.34	충주	충주	7,463	5,747	0.59	0.44		
	대전	46,074	75,081	0.23	0.20		순천	1,897	5,008	0.58	0.49		
	울산	43,389	97,472	0.39	0.43		안동	4,615	6,468	0.41	0.36		
	마산	57,833	57,607	0.22	0.03		소 도 시	충무	2,674	5,651	0.37	0.32	
	성남	31,033	47,999	0.23	0.27			김천	3,278	5,807	0.44	0.32	
	전주	17,193	40,568	0.32	0.27			속초	1,411	4,182	0.58	0.51	
	수원	23,455	46,719	0.24	0.20			삼천포	1,655	2,873	0.58	0.53	
	부천	23,850	67,147	0.35	0.38			광명	—	5,655	—	0.18	
	청주	22,389	35,109	0.28	0.18			창원	—	39,072	—	0.71	
	안양	24,105	43,586	0.34	0.19			대백	—	20,070	—	0.80	
포항	21,719	46,134	0.53	0.50	동해	—		8,669	—	0.61			
목포	9,630	18,842	0.45	0.39	제천	—		3,828	—	0.36			
진주	12,411	20,910	0.26	0.26	영서	—		3,751	—	0.42			
중 도 시	제주	8,933	13,886	0.55	0.51	시	서귀포	—	2,396	—	0.53		
	이리	11,816	25,419	0.18	0.34		정김	—	2,306	—	0.45		
	군산	19,502	22,603	0.42	0.43		동해	—	11,406	—	0.36		
	여수	4,857	12,564	0.52	0.43		동천	—	5,207	—	0.30		
	춘천	10,770	13,398	0.33	0.36		송탄	—	3,602	—	0.33		
	천안	11,054	12,030	0.23	0.28		나주	—	1,990	—	0.48		
	원주	5,502	9,311	0.23	0.32		남원	—	2,079	—	0.29		
의정부	10,893	11,479	0.36	0.30	영천	—	1,284	—	0.44				

成長率이 낮은 飲食料産業이나 기타産業에 集中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中小都市들은 地域의 特性에 따라 農林·漁業(濟州, 群山, 麗水, 榮州, 西歸浦 등)이나 鑛業(太白, 堤川 등) 1次産業에 높은 特化度를 보이거나 都小賣·宿泊業이나 運輸·倉庫·서어비스 등 都市의 基本的 需要를 유지하기 위한 3次産業에 높은 立地商을 나타내고 있다.

〈表 II-6〉은 〈表 II-4, II-5〉의 資料를 利用하여 立地商(L.Q)이 2 이상인 都市를 産業別로 整理한 것으로 製造業이나 農林·漁業, 鑛業 등으로

財貨를 生産하는 경우에는 他地域으로 財貨를 輸出하게 됨을 의미하며 都市서어비스産業의 경우에는 用役을 타지역의 住民에게 提供함으로써 地域의 成長潛在力이 큼을 나타내고 있다.

〈表 II-6〉의 資料는 Nelson의 技法을 適用한 〈表 II-3〉의 資料와 매우 유사한 結論에 도달하고 있는 바 이는 兩技法이 각 都市의 産業別 雇傭構造의 差異를 分析의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技法은 根本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標準偏差法은 단순히 地域産業構造를 全國과 對比하여 각

産業이 어느정도 偏倚되어 있는가 하는 點을 分析하는 반면에 立地商(L.Q)은 全國的으로 消費「패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각 地域의 産業이 어느정도의 輸出能力을 가지고 있는 가를 나타내어 준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지금까지 각 都市가 어떤 經濟機能에 얼마만큼 專門化되어 있는가 하는 點을 分析하였다. 그러면 單一機能에 專門化되어 있거나 또는 複合機能에 專門化되어 있는 경우 綜合的인 側面에서 專門化를 어떻게 評價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각 産業의 독특한 機能과 潛在力을 동일하게 指標化하여 評價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都市規模와 관련하여 都市間 比較의 한 手段으로 綜合的인 指標下에서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表 II-7〉은 1976 년과 1984 년의 都市別 特化係數를 나타내고 있는 바, 特化係數가 1 에 가까울수록 特定産業의 專門化가 높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表 II-2〉, 〈表 II-4〉와 連繫하면 보다 意味 있는 結果를 導出할 수 있다.

일반적인 傾向을 보면 百萬都市는 特化係數가 매우 낮아 機能이 多樣化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 中都市와 人口 10 萬이하의 小都市, 그리고 新工業都市는 特化係數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傾向은 두 年度를 통해 대체로 持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全都市를 통해 特化係數가 가장 낮은 都市는 역시 서울이며, 1979 년에는 釜山, 裡里가 그리고 1984 년에는 淸州, 光明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特化係數가 가장 높은 都市는 1976 년의 경우 非鐵金屬産業이 特化되어 있는 鎭海와 農林·漁業, 飲食料産業에 特化되어 있는 忠州, 束草, 三千浦이며, 1984 년의 경우에는 昌原, 太白, 東海 등 新工業都市가 월등히

은 特化度를 보이고 있다.

都市規模別로 살펴보면 서울, 釜山, 大邱, 光州 등 百萬都市는 特化係數가 매우 낮으며 大都市의 경우에도 蔚山, 富川, 浦項, 木浦, 濟州를 제외하고는 特化係數가 0.3 이하이다. 여기에서 濟州는 特化度가 높은 다른 大都市와는 달리 觀光運輸, 서어비스 등 3次産業의 比重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中小都市의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特化係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群山, 麗水, 鎭海, 龜尾, 昌原, 三千浦는 構成도가 높기 때문이며, 慶州, 江陵, 順天, 束草는 都市서어비스 産業의 比重이 높고 그리고 太白, 東海는 鑛業의 比重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각 都市別 그리고 都市規模別로 어떤 産業에 얼마나 專門化되어 있는가 하는 點을 살펴 보았는데 本 分析이 示唆하는 바는,

첫째, 어떤 産業이 特化되어 있는가 하는 點이 그 都市의 成長에 그 産業이 決定的인 影響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 特定産業에 지나치게 特化되어 있는 경우 長期的인 觀點에서 볼 때 機能衰退의 위험성이 크다는 點이다. 왜냐하면 前者의 경우 각 産業의 屬性上 또는 國家의 産業政策上 産業成長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며, 後者の 경우 特定財貨에 대한 購買力의 減退나 景氣變動으로 特定産業이 衰退할 可能性이 많아서 長期的으로 斜陽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經濟機能의 類似性

經濟機能의 類似性 分析은 産業構造 또는 就業構造에 있어서 類似한 地域을 判別하는 方法으로 類似성이 큰 都市間에는 産業成長의 「패턴」이나 機能의 役割이 비슷하게 된다.







〈表 II-10〉 都市別 産業構造의 類似性 (1976년)

都市別	類似性이 큰 都市		類似性이 적은 都市		都市別	類似性이 큰 都市		類似性이 적은 都市	
	區分		區分			區分		區分	
	對象都市	指數	對象都市	指數		對象都市	指數	對象都市	指數
서울	이리	0.16	진해	0.63	이리	서울	0.16	포항	0.62
부산	서울	0.26	춘천	0.67	군산	부산·이리 충주·속초	0.43	구미	0.75
대구	서천	0.11	진해	0.72	여수	삼천포	0.21	구미	0.78
인천	서울	0.21	순천	0.72	춘천	광주	0.18	충주	0.62
광주	전주	0.15	충주	0.62	천안	대구	0.11	순천	0.66
대전	청주	0.19	진해	0.63	원주	전주	0.17	포항·구미	0.63
울산	마산	0.26	순천	0.70	의정부	대전	0.21	진해	0.73
마산	성남	0.20	순천	0.74	경주	전주	0.22	구미	0.76
성남	이리	0.19	포항	0.72	강릉	제주	0.20	구미	0.81
전주	광주	0.15	구미	0.66	진해	안동	0.46	구미	0.86
수원	대구	0.15	진해	0.72	구미	마산	0.23	순천	0.87
부천	마산	0.22	제주	0.79	충주	군산	0.49	구미	0.83
청주	대구·천안	0.13	포항·진해	0.64	순천	제주	0.23	구미	0.87
안양	부천	0.25	속초	0.83	안동	광주	0.23	구미	0.70
포항	경주	0.50	구미	0.85	충무	여수	0.21	포항	0.70
목포	여수	0.23	구미	0.78	김천	진주	0.25	포항	0.68
진주	광주·서울	0.24	포항	0.63	속초	여수	0.21	안양	0.83
제주	강릉	0.20	구미	0.84	삼천포	여수	0.21	구미	0.79

類似性 分析이 地域政策에 있어 의미를 갖는 것은 類似性이 큰 都市間에는 國家産業政策의 效果가 類似하게 나타나게 되어 地域分析이나 政策에 有用한 情報를 提供해 주기 때문이다.

〈表 II-8〉과 〈表 II-9〉는 각각 1976년과 1984년의 都市間 類似性 程度를 「매트릭스」로 나타낸 것이며 〈表 II-10〉과 〈表 II-11〉은 이들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個別都市에 있어서 類似性이 가장 큰 都市와 가장 작은 都市를 拔擢한 것이다. 여기서 유사성指數가 0에 가까울수록 兩都市間에는 經濟機能이 유사함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經濟機能이 판이하게 다름을 나타낸다.

먼저 分析結果의 일반적인 特徵을 보면,

첫째, 百萬都市일수록 타지역과의 類似性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都市規模가 크고 都市年齡이 오래될수록 經濟機能이 多樣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체로 지난 10여년동안 成長率이 매우 높았던 工業都市와 일부 低成長 地方中小都市(順天 등)의 類似性係數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工業都市間에도 類似性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거리가 가까운 都市間에는 一般的으로 유사성係數가 높은 경향이 있는바, 이는 인접해 있는 都市間에는 他都市에 비하여 相互聯關係가 크다는 점을 示唆해 준다.

1976년의 都市間 類似性係數를 살펴보면 大邱—天安이 0.11로 機能間의 유사성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淸州—天安(0.13), 水原—大邱(0.15) 서울—裡里(0.16), 大田—淸州(0.19), 春川—光州(0.18), 原州—全州(0.17) 등 주로 都市機能이 多樣化되어 있는 地域間에 類似性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表 II-11〉 都市別 産業構造의 類似性(1984년)

都市別	區分				都市別	區分			
	類似性이 큰 都市		類似性이 적은 都市			類似性이 큰 都市		類似性이 적은 都市	
	對象 都市	指數	對象 都市	指數		對象 都市	指數	對象 都市	指數
서울	대전·전주	0.20	동해	0.64	경주	춘천	0.18	구미	0.69
부산	대구	0.21	서귀포	0.66	강릉	춘천	0.17	구미	0.82
대구	부산·대전	0.21	동해	0.69	진해	진주	0.30	구미	0.68
인천	광명	0.20	서귀포	0.70	구미	부영	0.27	제주	0.88
광주	원주	0.16	구미	0.69	충주	부영	0.25	구미	0.84
대전	의정부	0.19	동해	0.69	순천	정영	0.16	구미	0.85
울산	부천	0.21	제주	0.74	안동	정영	0.16	구미	0.76
마산	수원·송탄	0.17	동해	0.70	충무	진해	0.28	구미	0.65
성남	안양	0.20	동해	0.76	김천	남원	0.20	구미	0.67
전주	광주	0.19	구미	0.67	속초	서귀포	0.30	부천	0.78
수원	청주	0.15	동해	0.71	삼천포	여수	0.29	구미	0.80
부천	울산·마산	0.21	서귀포	0.84	광명	진주	0.15	서귀포	0.59
청주	수원	0.19	동해	0.64	창원	울산	0.37	서귀포	0.93
안양	부천	0.17	동해	0.64	태백	제천	0.72	창원	0.91
포항	안동·영천	0.48	구미	0.75	동해	목포	0.39	창원	0.90
목포	경주	0.23	구미	0.74	제천	원주·안동	0.22	구미	0.74
진주	광명	0.15	동해	0.57	영주	안동	0.16	구미	0.84
제주	서귀포	0.15	부천	0.82	서귀포	순천	0.21	구미	0.90
이리	대전	0.20	동해	0.71	정주	순천	0.16	구미	0.81
군산	목포	0.37	구미	0.79	김해	대구	0.21	서귀포	0.74
여수	목포	0.37	구미	0.85	동두천	대전	0.28	동해	0.69
춘천	전주	0.13	구미	0.75	송탄	마산	0.17	동해	0.78
천안	대구	0.21	제주	0.60	나주	진해	0.30	구미	0.84
원주	춘천	0.14	구미	0.71	남원	김천	0.20	구미	0.59
의정부	대전	0.19	울산	0.64	영천	정주	0.19	구미	0.78

※ 창원과 태백은 全體都市와 類似性이 가장 적은 都市로 여기서는 除外하였음.

그리고 類似性이 가장 작은 地域은 順天—龜尾(0.87)이며 그 외에도 주로 龜尾, 鎭海, 浦項 등 單一機能(특히 製造業중 1個部門)에 特化되어 있는 都市와 여타 都市間의 유사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의미있는 事實은 〈表 II-10〉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여타 多機能 地方中小都市와는 달리 順天과 工業都市間의 유사성이 유독 낮은 것은 그동안 都市成長過程에서 第2次 據點都市중 가장 低調한 成長率을 記錄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國家産業政策의 實施에 있어서 地域間의 類似性을 고려해야 할 必要性

을 示唆하고 있다.

1984년의 경우에도 1976년과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나 그동안 新都市 출현과 産業構造의 改編으로 對象都市에서 差異가 있다. 類似性이 가장 큰 都市는 春川—全州(0.13), 春川—原州(0.14)이며 그 외에도 水原—淸州(0.15), 濟州—서귀포(0.15), 晉州—光明(0.15), 光州—原州(0.16) 順天—井州(0.16), 安東—永川(0.16), 安養—富川(0.17) 등 주로 多機能都市間 또는 인접지역간에 나타나고 있다.

類似性이 작은 都市는 昌原, 太白, 東海 등 機能特化도가 매우 높은 新都市의 出現으로 1976

년과는 매우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都市는 昌原—西歸浦로 類似性係數가 0.93에 이르고 있으며 太白—昌原(0.91)과 東海—昌原(0.90)은 같은 新都市이면서도 가장 相異한 機能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太白과 昌原의 類似性係數는 대부분이 0.8~0.9로 모든 都市와의 類似性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表 II-11>의 分析에서는 제외시켰다. 그 외에도 龜尾, 東海등 단순 機能工業都市와 西歸浦, 濟州등 多機能서어비스 都市의 類似性係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 3. 機能構造의 變化

<表 II-2>, <表 II-4>, <表 II-5> 및 <表 II-6>까지에서 1976년과 1984년의 2個年度에 있어서 각 都市가 어떤 產業에 專門化되어 있는가 하는 問題와 또한 이들 두 期間동안에 專門化機能이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보았다. 즉 <表 II-2>와 <表 II-1>은 Nelson의 方法을 이용하여 都市別로 專門化機能이 큰 產業을 그리고 <表 II-4>, <表 II-5> 및 <表 II-6>은 立地商을 이용하여 同期間 동안에 각 都市의 專門化機能이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前項에서 分析한 것은 각 都市의 몇몇 專門化된 產業만을 對象으로 하였거나 <表 II-2>와 <表 II-3>의 경우 또는 全體產業을 對象으로 하여 個別產業의 變化過程은 說明되고 있으나 都市全體의 立場에서 같은 期間동안 얼마만큼 機能構造의 變化를 겪을 것인가 하는 점은 說明되지 않고 있다(<表 II-4>, <表 II-5>, <表 II-6> 參照). 따라서 여기서는 雇傭再編係數(coefficient of redistribution)를 利用하여 같은 期間동안 각 個別都市의 雇傭構造가 어떻게 再編成되었는가를 하는 점을 闡明으로써 機能構造의 變化를 分析

<表 II-12> 都市別 雇傭再編係數(1976~1984)

都市名	雇傭 成長率	雇傭再 編係數	都市名	雇傭 成長率	雇傭再 編係數
서울	5.23	0.2138	이리	10.05	0.2682
부산	3.86	0.0950	군산	1.86	0.2217
대구	2.86	0.1064	여수	12.61	0.2558
인천	7.11	0.1447	춘천	2.77	0.2518
광주	8.00	0.2039	천안	1.06	0.2089
대전	6.29	0.1661	원주	6.75	0.2447
울산	10.65	0.2149	의정부	0.66	0.3678
마산	0.05	0.2848	경주	7.13	0.2313
성남	5.60	0.1132	강릉	7.95	0.1278
전주	11.33	0.1231	진해	5.65	0.3891
수원	8.99	0.2947	구미	5.63	0.0500
부천	13.81	0.2240	충주	3.21	0.5544
청주	5.78	0.2927	순천	12.90	0.2322
안양	7.68	0.3202	안동	4.31	0.3003
포항	9.87	0.2288	충무	9.80	0.2725
목포	8.75	0.1360	김천	7.41	0.3152
진주	6.74	0.1490	속초	14.55	0.4238
계주	5.67	0.1380	삼천포	7.14	0.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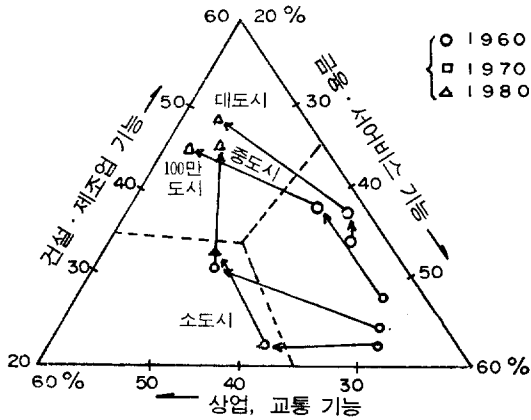
하고자 한다.

<表 II-12>는 1976년~84년동안의 각 都市의 雇傭再編係數를 나타내고 있다. 이 係數가 0에 가까우면 產業構造의 變化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우면 매우 큰 變化를 겪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때 몇몇 都市를 제외하고는 係數가 0.1~0.3의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바, 그동안 產業構造의 變化가 크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事實은 몇개의 先行研究에서 밝히고 있듯이<sup>11)</sup> 우리나라의 都市들은 이미 1960~70년 사이에 工業中心都市로의 급격한 機能構造의 變化를 겪었기 때문에 1970년대末부터는 機能構造의 變化가 매우 서서히 進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期間동안 機能構造의 變化가 가장 적었던 都市는 龜尾市로서 雇傭再編係數가 0.05로

11) 李瑞錫 “우리나라 都市機能과 構造의 特性,” 『都市問題』, 1985. 5, p. 24.

〔圖 II-1〕 規模別 都市群과 3大 主要機能과의 關係



資料: 李琦錫, 1985 앞의 글<sup>12)</sup>에서 拔萃 再編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서울,釜山,大邱,仁川등 百萬都市와 光州,大田,城南,全州,木浦,晉州등 都市機能이 多樣化되어 있는 일부 大都市의 경우 0.1~0.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龜尾市의 再編係數가 가장 낮은 것은 1970년대 중반에 工業都市로 급격한 産業構造의 變動을 겪은 후 계속 製造業部門에 90% 이상의 雇傭比率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中小都市의 경우 대부분 機能構造의 變化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忠州의 경우 再編係數가 0.55로 가장 높고 그외에도 束草(0.42), 議政府(0.37), 鎭海(0.39)등이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는 都市의 3大主要機能(建設·製造業機能, 商業·交通機能, 金融·서비스機能)이 年度別로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 하는 점을 三角座標(triangle graph)를 利用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圖 II-1〕은 都市規模에 따라 3大機能이 年度別로 어떻게 變化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바, 三角形의 外廓地帶는 일부 機能에 特化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三角形의 中心部는 각 機能이 고루 分布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960년에는 全都市群이 낮은 商工業과 높은 서어비스의 機能을 가지고 있었으나 期間이 변함에 따라 매우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百萬都市와 大都市는 1960年과 1970年에는 모두 서어비스機能이 特化했으나 1980년에는 製造業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970년~80年 사이에 機能構造의 變化를 겪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中都市는 1960年의 서어비스 機能에서 1970年에는 製造業中心機能으로 移動하여 大都市의 移動經路와는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으며, 小都市는 서어비스中心에서 商業中心으로 移動하여 製造業의 機能이 여타 都市群에 比하여 매우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다.

이상의 結果를 要約하면 都市規模에 關係없이 1970~80年사이에 都市機能變化中에서 특히 中小都市는 製造業機能으로서의 機能變化가 현저하며 工業機能基盤都市로 指向하고 있으나 그 過程에 있어서 中都市는 大都市에 比하여 機能의 變化를 크게 겪었음을 알 수가 있다.

### III. 中小都市의 經濟基盤 및 成長潛在力 分析

위에서는 中小都市의 專門化機能이 都市規模 및 都市特性別로 어떻게 分布되어 있으며 이러한 機能의 特性은 어떻게 變遷되어 왔는가 하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機能集中度分析과 類似性分析 그리고 機能變遷에 대한 分析을 試圖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機能의 特性이 당해 都市의 經濟基盤과 都市成長에 어떻게 기여해 왔으며 機能의 特性에 따라 어느 정도의 成長潛在力을 가지고 있는가, 中小都市의 成長을 阻害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分析하고자 한다. 성

12) 李琦錫 教授의 資料(「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에 根據)는 本 研究에서 利用하고 있는 「事業體勞動實態調查報告書」와 相異한 基準下에 調査된 것이기 때문에 産業比率의 內容에 差異가 있다.

장의 要因과 그 限界를 分析하는 데는 成長率示 差模型을 그리고 都市經濟基盤과 成長潛在力을 分析하는 데는 經濟基盤模型을 適用하고자 한다

1. 地域成長率示差分

地域이 成長하는 데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3가지 要因을 地域成長의 主要 要因으로 보고 이들 要因들이 각 都市의 特性(專門化程度, 人口規模 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며 個別都市의 實質成長과 어떤 聯關性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을 分析하고자 한다.

地域이 成長하는 要因으로는 첫째, 國家成長效果(national growth effect)를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國家전체의 成長이 그 地域의 成長效果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둘째, 產業構造效果(industrial mix effect)로서 그 地域이 特定產業에 專門化됨으로써 發生되는 成長效果이다. 이것은 全國의으로, 빠른 成長을 보이는 產業의 構成비가 크고 또 低成長을 보이는 產業의 構成비가 적을 때 나타나는 成長效果이다.

세째, 地域割當效果(regional share effect)이다. 당해 地域이 他地域에 비하여 市場의 條件이 有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地域的 要因으로 들 수 있는 成長效果는 產業構造效果와 地域割當效果이며 이 分析에서 적용하고 있는 成長率示差模型에서는 각각 加重要因과 競爭要因으로 나타난다.

〈表 III-1〉은 全國 36個 都市의 1976~84 年間의 雇傭成長率과 成長率示差를 나타내고 있다. 8年間동안 全國의 雇傭成長率은 688%로서 人口 100萬 이상의 巨大都市는 모두 全國의 雇傭成長率을 밀돌고 있다. 馬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成長率을 記錄하고 있으며<sup>13)</sup> 그 외에도 群

〈表 III-1〉 都市別 雇傭成長率 및 成長率示差 (1978~1984)

區分 都市別	雇傭 成長率 (%)	成長率示差		
		總示差 (NCR)	加重要因 (MIR)	競爭力要因 (SRR)
서울	50.42	-0.324	-0.008	-0.315
부산	35.42	-0.059	0.033	-0.092
대구	25.36	-0.079	0.019	-0.098
인천	73.20	-0.80	0.150	-0.231
광주	85.04	-0.539	-0.215	-0.323
대전	62.96	-0.276	-0.023	-0.252
울산	124.6	0.089	0.145	-0.056
마산	0.39	-0.165	-0.001	-0.164
성남	54.07	0.024	0.108	-0.084
전주	135.95	-0.529	-0.387	-0.142
수원	99.18	-0.167	0.093	-0.260
부천	181.54	0.240	0.484	-0.243
청주	56.81	-0.085	-0.007	-0.077
안양	80.81	-0.272	0.218	-0.490
포항	112.4	-0.183	-0.073	-0.109
목포	95.66	-0.284	-0.170	-0.114
진주	68.48	-0.208	-0.024	-0.183
청주	55.45	-0.468	-0.277	-0.191
이리	115.12	-0.052	0.010	-0.062
군산	15.90	-0.168	-0.009	-0.159
여수	158.67	-0.663	-0.226	-0.436
춘천	24.40	-0.295	-0.056	-0.239
천안	8.83	-0.165	0.011	-0.176
원주	68.68	-0.473	-0.130	-0.343
의정부	5.38	-0.335	0.007	-0.343
경주	73.53	-0.177	-0.296	0.119
강릉	84.43	-0.513	-0.423	-0.090
진해	55.27	-0.617	-0.042	-0.124
구미	55.02	0.090	0.141	-0.050
충주		0.055	0.095	-0.039
순천	163.99	-1.016	-0.642	-0.374
안동	40.15	-0.281	-0.136	-0.144
충무	111.33	-0.036	-0.015	-0.340
김천	77.15	-0.456	-0.150	-0.305
속초	196.38	-1.360	-0.690	-0.669
삼천포	73.59	-0.147	-0.005	-0.142

山, 春川, 天安, 議政府, 安東은 8年間 50%의 成長率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蔚山, 全

13) 馬山の 雇傭成長率이 「마이너스」인 것은 產業成長이 다소 둔화된 데에도 原因이 있겠으나 根本的인 理由는 市區域調整(昌原市로 分割)으로 인한 結果이다.

州, 富川, 浦項, 裡里, 順天, 忠武, 束草 등 9個 都市는 같은 期間 동안 雇傭成長率이 100%를 넘고 있어 좋은 對照를 보여주고 있다.<sup>14)</sup> 물론 단순히 雇傭成長率만 보고 그 地域의 成長程度를 評價할 수는 없으나 雇傭增加는 그 地域의 産業生産을 增加시킬 뿐만 아니라 人口規模의 增加를 동시에 隨伴하게 되므로 地域評價에 있어서 좋은 指標가 될 수 있다.<sup>15)</sup>

그러면 이러한 成長差를 誘發케한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각 都市別 成長差를 加重要因(MIR)과 競爭力要因(SRR)으로 區分하여 살펴보면 <表 III-1>과 같다. 같은 期間 동안 總示差(NCR)가 「프러스」인 都市는 蔚山, 城南, 富川, 龜尾, 忠州 등 5個 都市에 불과하며 나머지 都市들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들 5個 都市중에서도 加重要因(MIR)과 競爭力要因(SRR)이 모두 「프러스」인 都市는 하나도 없으며 競爭力要因(SRR) 즉, 地域間的 경쟁력은 모두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都市들이 有利하게 成長할 수 있었던 것은 産業構造의인 側面에서 全國의으로 빠른 成長率을 보이는 産業이 專門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都市가 어떤 産業에 構造的 優位點과 競爭의 優位點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後述한다.

다음으로 加重要因(MIR)이 큰 都市 즉, 有利한 産業構造를 가지고 있는 都市는 위의 5個 都市외에도 釜山, 大邱, 仁川, 水原, 安養, 裡里,

天安, 議政府 등 8個 都市이며 競爭力要因(SRR)이 「프러스」인 都市는 全國에서 慶州市 1個 뿐이다. 그러나 <表 III-1>의 數値는 각 都市의 産業別 加重要因(MIR)과 競爭力要因(SRR), 그리고 總示差(NCR)를 합한 結果이기 때문에 보다 正確한 分析은 後述한다.

<表 III-2>는 각 都市의 産業中에서 總示差(NCR)와 加重要因(MIR) 그리고 競爭力要因(SRR)이 가장 높은 産業을 人口規模別로 나타내고 있다.

人口 100萬以上の 巨大都市의 경우 仁川을 제외하고는 모두 都小賣業, 運輸·倉庫, 金融·保險 등 3次産業의 總示差가 높으며 競爭力要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加重要因이 높은 産業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製造業에 속해 있다.

人口規模 20~100萬의 大都市의 경우에는 그 樣相이 매우 다르다.

光州, 大田, 全州 등 地方中心都市를 제외하고는 總示差가 큰 産業은 모두 製造業이며 그중에서도 械機裝備 등 重工業分野에 集中되어 있다. 加重要因이 높은 産業도 總示差가 높은 産業과 동일하다.

그러나 競爭力要因은 械機裝備産業뿐만 아니라 建設業, 都小賣業, 서어비스業 등 3次産業에서도 높은 數値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分析結果는 都市機能과 成長潛在力의 分析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사실을 示唆하고 있는 바, 大都市의 成長은 주로 製造業中에서도 일부 特定分野에 特化됨으로써 가능했으며 이들 都市들은 地理的인 立地나 市場條件의 優位 등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政府의 産業政策에 따라 有利한 産業構造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實은 相對的으로 落後된 地方中小都市의 경우를 分析해 봄으로써 더욱 명백해 진다.

14) 麗水, 順天, 忠武, 束草의 雇傭成長率이 매우 높았던 것은 初期의 雇傭規模가 워낙 작은데에도 原因이 있는 것으로 增加率만 가지고 大都市와 直接比較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15) 1984年의 人口와 雇傭規模間의 相關係數는 0.695로 雇傭增加와 人口增加는 매우 密接한 關聯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II-2〉 人口規模別 成長率示差分析 (1978년~1984년)

人口規模	都 市 名		年 平 均 人口成長率 (%)	年 平 均 雇傭成長率 (%)	成 長 率 示 差		
					NCR이 높은 産 業	MIR이 높은 産 業	SRR이 높은 産 業
100萬 以上	서 부 대 인	울 산 구 천	3.02	5.23	WHO	WHO	WHO
			3.52	3.86	TRA	MAN5	TRA
			4.67	2.86	MON	MAN2	MON
			4.93	7.11	MAN8	MAN3	MAN8
50萬~100萬	광 대 울	주 진 산	3.82	7.99	CON	TRA	CON
			5.48	6.29	WHO	MAN2	CON
			8.21	10.65	MAN8	MAN8	MAN
20萬~50萬	마 성 진 수 부 청 안 포 목 진	산 남 주 원 천 주 양 향 포 주	2.87	△0.001	MAN8	MAN8	
			4.87	5.60	MAN3	MAN9	MAN3
			3.06	11.33	WHO	TRA	WHO
			5.96	8.99	MAN8	MAN8	MAN8
			13.97	13.81	MAN8	MAN8	MAN8
			5.38	5.78	MAN8	MAN2	MAN8
			9.03	7.68	MAN8	MAN2	MAN8
			6.13	9.87	MAN7	MAN7	MON
			1.86	8.75	MAN6	MAN6	WHO
3.99	6.74	MAN8	MAN8	SER			
10萬~20萬	제 이 군 여 춘 천 원 의 경 강 진 구 총 순 안	주 리 산 수 천 안 주 부 주 룡 해 미 주 천 동	3.86	5.67	CON	TRA	CON
			5.23	10.05	MAN9	MAN8	MAN9
			1.57	1.86	WHO	MAN3	WHO
			3.29	12.61	MAN1	TRA	MAN5
			1.91	2.77	WHO	TRA	WHO
			5.19	1.06	WHO	MAN2	WHO
			2.21	6.75	WHO	SER	WHO
			3.18	0.66	CON	MAN2	CON
			2.13	7.13	WHO	CON	WHO
			4.11	7.95	TRA	TRA	WHO
			2.06	5.65	MAN8	MAN5	MAN8
			6.70	5.63	MAN8	MAN8	CON
			1.46	△3.21	CON	MAN2	CON
0.89	12.90	SER	SER	WHO			
1.55	4.31	SER	TRA	WHO			
5萬~10萬	충 김 속 삼	무 천 초 천 포	2.59	9.94	MAN1	MAN1	TRA
			1.29	7.41	SER	TRA	SER
			0.05	14.54	CON	TRA	CON
			0.97	7.14	MAN1	MAN1	MAN1

註：NCR 總示差      MON 金融保險      MAN5 石油·化學  
 MIR 加重要因      SER 서비스      MAN6 非金屬  
 SRR 競爭力要因      MAN1 음식료업      MAN7 철강·금속  
 CON 建設等      MAN2 섬유·의류      MAN8 機械·장비  
 WHO 都小賣宿泊業      MAN3 家具類      MAN9 其他  
 TRA 運輸·倉庫      MAN4 종이·인쇄

人口規模 20 萬이하의 中小都市의 경우 裡里, 麗水, 鎭海, 龜尾, 忠武, 三千浦 등 6 個 都市를 제외하고는 總示差(NCR)가 높은 產業은 都小賣業, 建設業, 서어비스業 등 非製造業部門이며 이들 6 個 都市중에서도 鎭海와 龜尾를 除外하고는 모두 飲食料業과 기타 製造業 등 成長率이 낮은 產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加重要因(MIR)의 경우, 위 6 個 都市외에도 群山의 家具業, 天安, 議政府, 忠州의 섬유衣類製造業이 높게 나타나며, 나머지 都市들은 대부분 運輸·倉庫業(濟州, 麗水, 春川, 江陵, 安東, 金泉, 東草)이나 서어비스業(原州, 順天)에서 加重要因(MIR)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競爭要因(SRR)이 높은 產業은 都小賣業(群山, 春川, 天安, 原州, 慶州, 江陵, 順天, 安東)과 建設業(濟州, 議政府, 龜尾, 麗水, 鎭海, 三千浦)등이다.

여기에서 中小都市의 總示差와 加重要因 그리고 競爭力要因의 관계를 보면 大都市와는 달리 總成長示差는 產業構造的 特性보다는 地域競爭要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中小都市에 대한 育成計劃을 수립하거나 產業政策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필요 고려되어야 할 주요사항이라 할 수 있다.

## 2. 經濟基盤 및 成長潛在力 分析

經濟基盤模型은 地域의 產業別 雇傭者(또는 産業生産額)를 輸出産業部門에 종사하는 基盤部門 雇傭者和 당해地域의 基本的 消費를 위하여 生産하는 支援部門 雇傭者로 구분하고 이 兩部門의 比率를 利用하여 地域乘數를 導出하는 模型이다. 따라서 經濟基盤分析에서 가장 중요한 過程은 複合的인 地域産業을 양부문으로 分離하는 過程이며 이 過程이 얼마나 正確하느냐에 分析의 關鍵이 달려있다.

地域産業을 兩部門으로 가장 正確하게 分離하는 方法은 直接調査에 의한 方法이나 많은 地域과 産業을 일일이 調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地域間 産業 聯關分析表」가 作成되지 않고 있어 이들 兩部門으로 分離하려면 間接的인 方法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本 研究에서는 地域産業을 基盤部門과 支援部門으로 分離 測定하기 위하여 剩餘者指標(Index of Surplus Works)와 最小雇傭要求量法(Minimum Requirement Method)을 適用했으며 地域 雇傭乘數는 單純模型에 의해 導出하였다.

剩餘者指標는 각 都市의 消費「패턴」이 全國의 으로 동일하다는 假定을 한다.

반면 最小雇傭要求量法은 일정규모의 都市가 유지되기 위해 產業別로 要求되는 最小限의 要求(minimum requirements) 또는 內部的 要求(internal needs)를 설정하고 地域의 産業比率에서 最小限의 要求量을 超過한 部門을 基盤部門으로 假定하고 있다. 따라서 剩餘者指標法을 適用할 경우 産業分類를 細分하지 않으면 經濟基盤乘數가 過大評價될 가능성이 크며 最小雇傭要求量法을 적용할 경우에는 過小評價될 可能性이 크다.<sup>16)</sup>

### 가. 靜態分析(Cross-Section Analysis)

〈表 III-3〉은 都市別·産業別 雇傭者數를 利用하여 1976 년과 1984 년의 都市別 地域雇傭乘數를 導出した 것이다. 여기서 使用된 資料는 「事業體勞動實態調査報告書」의 産業別中 2 分類(two-digits) 雇傭者數이며 基盤部門과 支援部門의 測定은 剩餘者指標에 의하였다.

16) E.L. Ullman and M.F. Dacey, "The Minimum Requirements Approach to the Urban Economic Base," *Paper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6, 1960, p. 176.



<表 Ⅲ-3>

都市別 地域雇傭乘數(Index of Surplus Works 適用)

都市別	區 分	人 口 數 (入)		雇 傭 者 數 (入)		地 域 雇 傭 乘 數	
		1976	1984	1976	1984	1976	1984
서울	서울	7,254,958	9,204,344	760,757	1,144,314	6.37	5.68
부산	부산	2,573,713	3,395,171	357,200	483,725	4.85	4.13
대구	대구	1,359,040	1,958,812	164,130	205,753	4.34	3.69
인천	인천	830,061	1,220,311	112,789	195,352	4.13	3.87
광주	광주	625,007	843,465	33,521	62,028	3.48	2.78
대전	대전	522,439	800,397	46,074	75,081	4.29	5.74
울산	울산	269,635	506,878	43,389	97,472	2.52	2.25
마산	마산	338,216	424,227	57,833	57,607	4.31	3.26
성남	성남	284,946	416,786	31,033	47,999	4.11	3.42
전주	전주	322,020	409,975	17,193	40,568	3.06	3.40
수원	수원	235,159	373,636	23,455	46,719	3.90	4.85
부천	부천	119,598	340,307	23,850	67,147	2.66	2.61
청주	청주	200,573	305,175	22,389	35,109	3.25	5.02
안양	안양	146,134	291,919	24,105	43,586	2.75	5.29
포항	포항	151,891	244,542	21,719	46,134	1.81	1.93
목포	목포	196,854	228,075	9,630	18,842	2.23	2.53
진주	진주	160,538	219,496	12,411	20,910	3.67	3.70
제천	제천	139,246	188,518	8,933	13,886	1.83	1.88
이리	이리	120,886	181,747	11,816	25,419	5.52	2.89
군산	군산	159,324	180,475	19,502	22,603	2.34	2.30
여수	여수	134,908	174,788	4,857	12,564	1.95	2.16
춘천	춘천	142,014	165,275	10,770	13,398	2.89	2.61
원주	원주	101,361	151,962	11,054	12,030	3.81	3.34
의정부	의정부	123,612	147,226	5,520	9,311	3.09	2.86
경주	경주	113,207	145,461	10,893	11,479	2.64	3.19
강릉	강릉	109,937	130,157	3,926	6,813	2.11	2.57
진해	진해	91,285	125,994	4,375	8,069	1.79	1.98
대구	대구	103,821	122,174	3,635	5,644	1.63	3.23
구미	구미	72,037	121,000	31,142	48,278	2.11	2.02
충주	충주	107,246	120,407	7,463	5,747	1.67	2.14
순천	순천	109,639	117,680	1,897	5,008	1.71	1.93
안동	안동	98,293	111,178	4,615	6,468	2.32	2.61
충무	충무	67,571	82,892	2,674	5,651	2.68	2.88
김천	김천	68,889	76,360	3,278	5,807	2.16	3.08
속초	속초	72,042	72,324	1,411	4,182	1.72	1.86
삼천포	삼천포	59,840	64,654	1,655	2,873	1.66	1.83
광명	광명	—	198,354	—	5,655	—	5.15
창원	창원	—	143,429	—	39,072	—	1.35
태백	태백	—	117,143	—	20,070	—	1.22
동해	동해	—	103,005	—	8,669	—	1.60
제천	제천	—	97,452	—	3,828	—	2.57
영주	영주	—	85,199	—	3,751	—	2.27

區分 都市別	人 口 數 (人)		雇 傭 者 數 (人)		地 域 雇 傭 乘 數	
	1976	1984	1976	1984	1976	1984
서 귀 포	—	80,389	—	2,396	—	1.80
정 주	—	76,799	—	2,306	—	2.13
김 해	—	76,001	—	11,406	—	2.65
동 두 천	—	68,971	—	5,207	—	3.42
송 탄	—	65,178	—	3,602	—	2.87
나 주	—	60,600	—	1,990	—	1.97
남 원	—	60,186	—	2,079	—	3.19
영 천	—	53,337	—	1,284	—	2.18

基盤乘數(雇傭乘數)가 높은 都市는 서울, 釜山, 大田, 水原, 安養, 淸州, 光明등으로 都市機能이 多樣化되어 있는 일부 巨大都市와 首都圈地域의 大都市가 이 範疇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이들 地域은 독자적 雇傭增加에 따른 波及效果가 매우 커서 成長潜在力이 매우 큼을 나타낸다. 이들 都市외에도 基盤乘數가 높은 地域으로는 大邱, 仁川, 馬山, 城南, 晋州, 全州 등 大都市와 天安, 議政府, 鎭海, 金泉, 東豆川 등 地方中心都市중 産業構造가 多樣化되어 있는 都市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地方中心都市의 경우 産業構造가 多樣化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雇傭比率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 波及效果가 期待보다 작게 나타나는 問題點이 있다.

위 <表 III-3>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一般的으로 都市規模가 크면 基盤乘數는 크게 나타나는 傾向이 있다.<sup>17)</sup> 都市規模가 크면 自然的으로 社會, 經濟的 機能이 多樣해지고 都市서비스의 基本的 要求도 크기 때문에 外生變數의 變化에 따른 波及效果가 크게 된다.

둘째, 特定産業 또는 機能에 지나치게 特化되어 있으면 雇傭乘數가 낮게되고 따라서 産業간

의 波及效果가 작게 나타난다. <表 III-3>의 蔚山, 浦項, 昌原, 太白, 東海 등 鑛業, 製造業이 지나치게 專門화된 都市와 濟州, 江陵, 順天 등 서어비스 都市들이 이 範疇에 속한다.

셋째, 都市規模가 작은 小都市나 新都市는 雇傭乘數가 매우 낮다. 이는 都市機能간의 分化度가 낮거나 機能이 多樣하게 分化되어 있어도 經濟力 자체가 워낙 낮아 變化의 活動이 지속적으로 波及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째, <表 III-3>의 雇傭乘數는 전반적으로 過大評價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表 III-4>의 10個 都市에 대한 雇傭乘數의 計算에서 産業分類를 얼마나 細分하는가에 따라 다소 差異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즉 A는 three-digits(51個部門)으로 細分한 경우이며, B는 two-digits(30個部門) 그리고 C는 one-digits(9個部門)로 分類했을 경우의 雇傭乘數를 나타내는 바 産業分類가 細分化될수록 雇傭乘數는 작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보다 근사치에 接近하기 위해서는 <表 III-3>의 結果를 다소 下向調整해야 하나 本 研究에서는 뒤에 分析하게 되는 “Minimum Requirement Method”에서 下向調整前 근사치를 導出하고 있기 때문에 <表 II-10>의 資料는 그대로 쓰고자 한다.

이번에는 Ullman 과 Dacey 가 San Francisco

17) 이러한 事實은 뒤에 分析하게 되는 Minimum Requirement's Method에 의해 더욱 明白히 나타나게 된다.

〈表 Ⅲ-4〉 都市別 B-N ratio 및 Employment Multiplier (Index of Surplus Works 적용) (1984年)

區分 都市別	人口數 (人)	雇傭者數 (人)	N/B-ratio			Employment Multiplier		
			A	B	C	A	B	C
서울	9,204,344	1,144,814	3.58	4.68	5.92	4.58	5.68	6.92
부산	3,395,170	483,725	2.52	3.13	5.54	3.52	4.13	6.54
대구	1,958,812	205,753	1.76	2.69	7.86	2.76	3.69	8.86
광주	843,465	62,028	1.74	1.78	1.78	2.74	2.78	2.78
울산	506,878	97,472	0.83	1.25	3.78	1.83	2.25	4.78
진주	409,975	40,668	1.34	2.40	2.75	2.34	3.40	3.75
포항	244,542	46,134	0.77	0.93	7.65	1.77	1.93	8.65
순천	117,680	13,398	0.90	0.93	1.22	1.90	1.93	2.22
등해	103,005	8,669	0.52	0.60	2.42	1.52	1.60	3.42
삼천포	64,614	2,873	0.67	0.83	7.80	1.67	1.83	8.80

※ A : three-digits 에 의한 産業分類資料의 結果值  
 B : two-digits 에 의한 "  
 C : one-digit 에 의한 "

〈表 Ⅲ-5〉 都市規模別 基盤乘數 (Minimum Requirement Method 적용)

産業別 年度對比	5~10萬		10~13萬		13~20萬		20~50萬		50萬이상	
	1976	1984	1976	1984	1976	1984	1976	1984	1976	1984
農林水産業	0.04	—	—	—	0.05	—	—	—	0.08	0.02
鑛業	—	—	—	—	—	—	—	—	—	0.03
製造業	19.46	15.14	28.11	23.49	19.69	27.24	41.15	40.06	44.34	46.83
電氣가스業	—	0.61	—	0.43	0.48	0.54	0.16	0.19	0.38	0.30
建設業	0.02	0.90	0.18	1.59	0.6	2.17	0.28	1.56	1.00	3.17
都·小賣業	0.85	1.11	0.85	1.03	2.30	3.12	1.29	3.18	3.10	4.16
運輸·倉庫業	4.23	6.49	6.15	4.30	5.38	9.05	5.78	4.41	7.61	2.95
金融保險業	3.26	1.96	1.43	2.79	3.11	2.54	1.96	2.03	2.52	4.12
서어비스業	2.85	7.46	1.87	2.60	4.10	3.64	2.48	4.12	3.00	6.44
計 (支援部門)	30.91	33.68	38.59	36.23	33.91	48.30	53.10	61.55	62.03	74.32
基盤部門	69.09	66.32	61.41	63.77	66.09	51.70	46.90	38.45	37.97	25.68
基盤乘數	1.45	1.51	1.63	1.57	1.51	1.93	2.13	2.60	2.63	3.89
都市數	7	14	9	9	8	10	6	10	6	7

地域에 適用한 바 있는 最小雇傭要求量法에 따라 基盤乘數를 導出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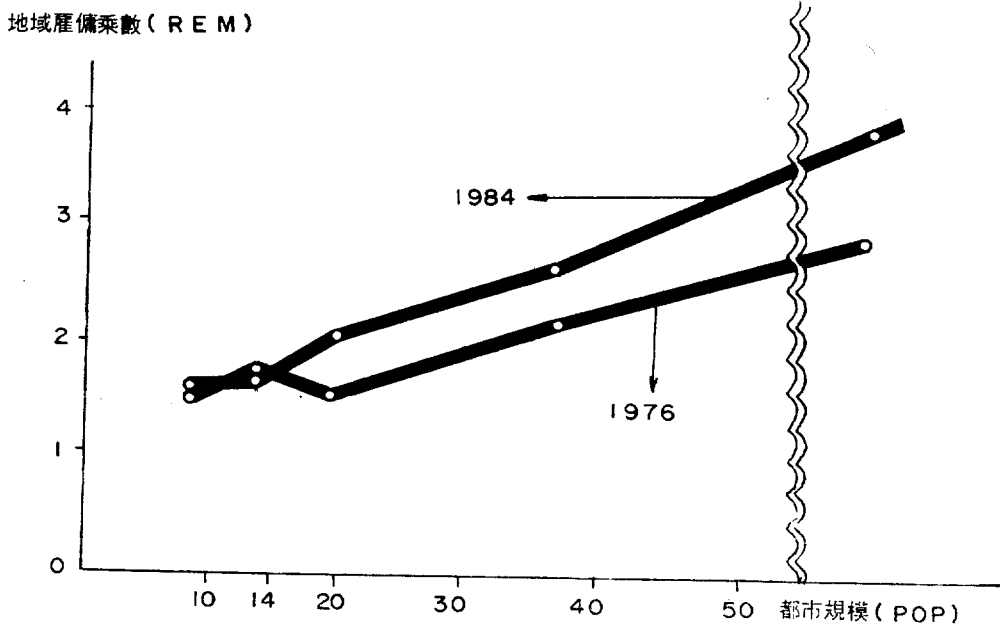
〈表 Ⅲ-1〉과 〈表 Ⅲ-5〉는 1976년과 1984년의 都市規模別 基盤乘數를 同方法에 따라 導出한 것이다. 導出過程은 먼저 全國都市를 人口規模에 따라 5階層으로 區分하고 각 階層에 속해 있는

都市들의 産業別 構成比를 구한 다음 각 階層別 産業別로 가장 적은 構成比를 그 都市階層의 基本的 消費活動을 위한 最小雇傭要求量으로 보고 각 産業의 最小要求量의 合計를 당해 都市階層의 支援部門雇傭構成比로 推定하게 된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

〔圖 III-1〕

都市規模別 地域雇傭乘數



간 開放性이 크고 單一機能에만 專門化된 地域이 많아 同 方法을 그대로 適用하게 되면 基盤乘數가 過小評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Alexander이 K-Factor(K-Value)를 適用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각 都市階層別 最下位 産業構成比를 適用하지 않고 次順의 構成比(second lowest factor)<sup>18)</sup>를 適用하였다.

〈表 III-5〉는 1976 년과 1984 년의 全國都市를 人口規模別 5階層으로 分類하고 각 階層別 支援 産業構成比와 基盤産業構成比를 計算하여 基盤乘數를 導出하였다. 즉, 人口規模 5~10萬都市의 基盤乘數는 1976 년의 경우에는 1.45 에 接近하고 있으며 10~13萬은 1.63, 13~20萬은 1.51, 20~50萬은 2.13, 그리고 50萬이상의 都市는 2.63 에 接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84 년의 基盤乘

數도 1976 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都市規模가 커 갈수록 基盤乘數가 커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都市規模가 크면 그만큼 成長潜在力이 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表 III-3〉의 경향을 더욱 確實히 立證해 주고 있다.

특히 양년도를 比較해 볼 때 같은 都市規模라도 1984 년의 基盤乘數가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R.B. Andrew의 都市年齡과 基盤乘數의 關係에 관한 假說<sup>19)</sup>을 立證해 주고 있다. 즉 동일한 都市라 하더라도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都市機能이 多樣化되고 있는 經濟活動의 波及效果가 커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圖 III-1〕은 이러한 關係를 圖表로 表示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人口規模와 基盤乘

18) G. Alexander, *The Industrial Structure of American Citie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56).

19) R.B. Andrews, "Economic Studies." in W.I. Goodman and Freund (eds.), *Principles and Practice of Urban Planning*, (Washington D.C.: ICMA, 1968), p. 78.

〈表 Ⅲ-6〉 年度別 雇傭乘數의 變化推移

都市別 區分 年度別	서울			全州			富川			順天		
	基 産 構 成 比	盤 産 構 成 比	支 援 乘 數	基 産 構 成 比	盤 産 構 成 比	支 援 乘 數	基 産 構 成 比	盤 産 構 成 比	支 援 乘 數	基 産 構 成 比	盤 産 構 成 比	支 援 乘 數
1974	19.09	80.91	5.23	39.22	60.78	2.55	56.20	43.80	1.78	59.48	40.52	1.68
1976	16.64	83.36	6.01	35.52	64.48	2.81	42.91	57.09	2.33	62.74	37.26	1.59
1978	16.13	83.87	6.20	44.64	55.36	2.24	44.35	55.65	2.25	58.90	41.10	1.70
1980	22.67	77.33	4.41	51.27	48.73	1.95			2.41	51.67	48.33	1.93
1982	22.33	77.67	4.48	42.01	57.99	2.38	42.88	57.12	2.33	44.89	55.11	2.23
1984	21.83	78.17	4.58	42.73	57.27	2.34	44.27	55.73	2.26	52.20	47.79	1.92

※: 産業分類는 three-digits 에 의함.

數사이에는 經驗的分析에서도 相當히 密接한 關聯性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두 年度의 基盤乘數(REM)와 人口規模(POP)를 線型函數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976年  $REM = 1.57009 + 0.552 \times 10^{-6} (POP)$
- 1984年  $REM = 1.16014 + 0.32869 \times 10^{-5} (POP)$

나. 動態分析(Time-Series Analysis)

前項에서는 주로 1976년과 1984년 현재에 있어서 각 都市別로 雇傭乘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分析하였는데 그러면 한 都市가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雇傭乘數가 어떻게 變할 것인가?

R.B. Andrews는 理論的인 측면에서 동일한 都市라 하더라도 時間이 經過하게 되면 都市機能이 多樣해지고 消費「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雇傭乘數도 변하게 된다고 說明하고 있으며<sup>20)</sup> Ullman과 Dacey는 1940年과 1950年의 San Francisco地域에 대한 經驗調査에서 같은 都市規模에 대한 雇傭乘數가 1940年 보다 1950年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實證한 바 있다.<sup>21)</sup>

前項의 〈表 Ⅲ-5〉에서도 1976년과 1984년 2

個年度를 最小雇傭要求量法에 따라 測定한 結果 Andrews의 理論이 어느 정도 不合理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表 Ⅲ-6〉은 具體的인 都市와는 相關없이 2個年度의 人口規模別로 階層化하여 測定된 結果이므로 階層別로 都市의 構成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都市年齡과 雇傭乘數와의 關聯性을 보기 위해서는 각 個別都市의 時間變化에 따른 變化推移를 살펴 보아야 한다. 〈表 Ⅲ-6〉은 都市規模別로 각각 1個의 都市를 選定하여 1974년에서 1984년에 이르기까지 地域雇傭乘數가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1974年의 5.23에서 漸次增加하다가 1980년에는 4.41로 떨어지고 그 후로는 아주 緩慢하게 增加하고 있다.

全州市의 경우도 1976년까지 增加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減少하고 또 1982년부터는 조금씩 增加하는 樣相을 띠고 있다. 富川市의 경우에는 增加와 減少를 계속 되풀이 하고 있어 一律的인 傾向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順天市의 경우에는 나머지 세 都市와는 달리 雇傭乘數가 매우 完滿히 安定的으로 增加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84年度에 와서는 약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都市年齡과 雇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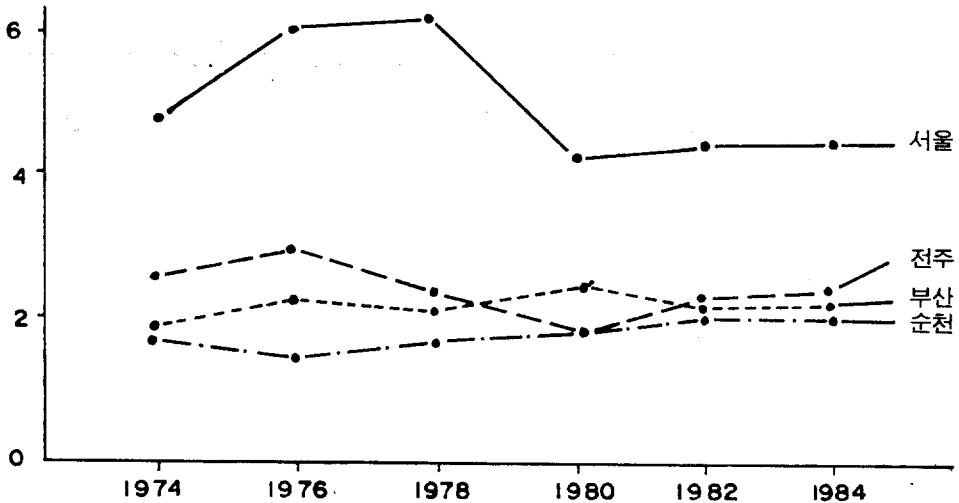
20) R.B Andrews, *op. cit.*, p. 99.

21) E.L. Ullman, M.F. Dacey, *op. cit.*, pp. 173~194.

[圖 3-2]

年度別 地域雇傭乘數의 推移

地域雇傭乘數



乘數간의 一律的인 關聯性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 外國의 都市와는 달리 일반적인 關聯性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都市가 政府의 人爲的인 開發政策때문에 自發的으로 成長할 수 없었던 데도 要因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富川市의 경우와 같이 일부 産業機能에 지나치게 特化되어 있어 景氣變動에 따라 不安定하게 波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都市機能이 다양하고 그동안 政府의 人爲的인 開發政策이 없었던 順天市의 경우에는 相對的으로 安定的인 推移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圖 III-2]는 4 都市의 年度別 雇傭乘數의 推移를 「그래프」상에 나타낸 것이다. 全期間을 통하여 都市規模가 큰 都市의 乘數는 작은 規模의 都市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一律的인 增加傾向이나 減少傾向은 發見되지 않으나 대체로 一定한 範圍內에서 그때 그때의 景氣나 消費「패턴」의 變化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즉, 서울의 경우 4~6의 범위내에서, 全州와

富川의 경우 2~3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順天의 경우에는 1.5~2.5의 범위속에서 安定的으로 變化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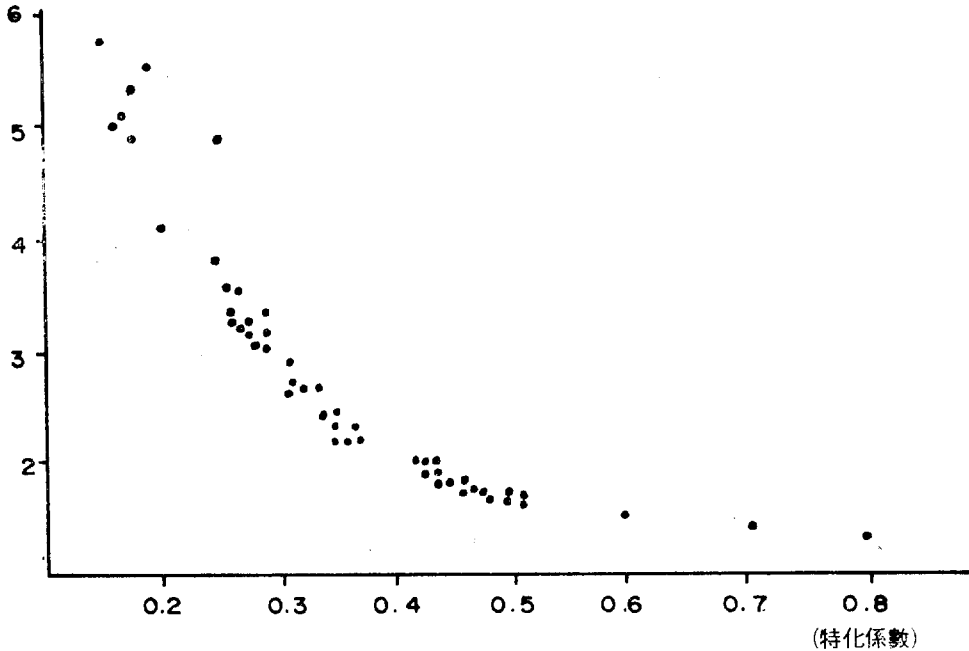
### 3. 都市機能과 成長潜在力

지금까지 各 都市 또는 都市規模別로 靜態分析과 動態分析을 통하여 都市經濟基盤과 成長潜在力에 관한 分析을 試圖하였는 바 分析의 結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地域計劃이나 政策을 實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基準을 提示하거나 또는 限界를 設定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個別都市의 機能的 特性和 成長潜在力間에는 어떤 關係를 設定할 수 있는가?

本 研究에서는 個別都市의 機能的 性格과 成長潜在力과의 關聯性을 把握하기 위하여 <表 II-7>에서 구한 各 都市의 特化係數와 人口規模를 獨立變數(independent variables)로 하고 <表 III-3>에서 구한 基盤乘數를 從屬變數(dependent variables)로 하여 50 個都市 (1985年 現在)의 데이터

[圖 III-3] 特化係數와 地域雇傭乘數  
(雇傭乘數)



를 入力하여 回歸分析 하였다.

먼저 回歸分析에 앞서 50個都市의 特化係數와 基盤乘數의 關係를 「그래프」상에 表示하면 [圖 III-3]과 같이 매우 높은 傾向性을 보이고 있다. 즉 特化係數가 클수록 雇傭乘數가 작아지며 반대로 特化係數가 작아지면 雇傭乘數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特化係數와 雇傭乘數간에는 逆의 關係가 成立하게 된다.

그리고 <表 III-7>은 人口規模만을 獨立變數로 했을 때 回歸式에서 導出되는 “期待雇傭乘數( $\overline{REM}$ )”와 “實測雇傭乘數(REM)”를 나타내고 있다.<sup>22)</sup>

<表 III-7>에 의하면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등 百萬都市의 경우에는 상당히 近似値에

접근되고 있으며, 50個都市중 30個程度는 같은 傾向性을 띠고 있으나 나머지 都市들은 回歸線上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都市規模의 크기가 雇傭乘數의 크기와 正確하게 比例關係에 있지 않은 데에도 있지만 20餘個의 都市들은 대부분 特定產業에 專門化되어 있어 都市規模만으로는 이들의 關係를 適切히 說明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表 III-8>은 人口規模(FOP)와 特化係數(SPE)를 獨立變數로 했을 경우의 回歸分析結果이다. 同表에서 볼 수 있듯이 實測值(REM)와 期待值( $\overline{REM}$ )가 매우 類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것은 特化係數와 雇傭乘數의 相關度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回歸方程式은 1984年 現在의 50個都市의 人口數와 特化係數 그리고 雇傭乘數를 入力하여 電算處理한 結果이며 여러 形態의 方程式중에서 相關係數( $R^2$ )가 가장 높은 方程式을 選擇한 것

22) 여기서 適用하고 있는 回歸式은 50個都市의 雇傭乘數를 regression 한 것이 아니고 <表 2-10>의 都市規模別 雇傭乘數를 regression 한 結果다. 따라서 比較의 基準이 다르나 各都市가 基準值로부터 얼마나 偏倚되어 있는가를 觀察할 수 있기 때문에 그 意味를 賦與할 수 있다.

<表 III-7>

人口規模와 地域雇傭乘數

都 市	人 口 (千人) (POP)	雇 傭 乘 數		都 市	人 口 (千人) (POP)	雇 傭 乘 數	
		REM	REM			REM	REM
서 울	9,204	5.68	5.85	경 주	130	2.57	1.76
부 산	3,395	4.13	4.42	강 룡	126	1.98	1.75
대 구	1,959	3.69	3.78	진 해	122	3.23	1.73
인 천	1,220	3.87	3.31	구 미	121	2.02	1.73
광 주	843	2.78	2.98	충 주	120	2.14	1.72
대 전	800	5.74	2.94	순 천	118	1.93	1.72
울 산	507	2.25	2.59	안 동	111	2.61	1.69
마 산	424	3.26	2.46	충 무	83	2.08	1.55
성 남	417	3.42	2.45	김 천	76	3.08	1.52
진 주	410	3.40	2.44	속 초	72	1.36	1.49
수 원	374	4.85	2.37	삼 천	64	1.86	1.44
부 천	340	2.61	2.31	광 명	98	5.15	1.98
청 주	305	5.02	2.24	창 원	143	1.35	1.81
안 양	291	5.29	2.21	태 백	117	1.22	1.71
포 향	244	1.93	2.10	등 해	103	1.60	1.65
북 포	228	2.53	2.07	제 천	97	2.27	1.62
진 주	219	3.70	2.04	영 주	85	2.27	1.56
계 주	190	1.88	1.96	서 귀	80	1.80	1.54
이 리	182	2.89	1.94	경 주	77	2.13	1.52
군 산	180	2.30	1.93	김 해	76	2.65	1.92
여 수	175	2.16	1.92	동 두	69	3.42	1.47
춘 천	165	2.61	1.89	송 탄	65	2.87	1.45
천 안	152	3.34	1.84	나 주	61	1.93	1.42
원 주	147	2.86	1.82	남 원	61	3.19	1.42
의 정	145	3.19	1.82	영 천	53	2.18	1.37

으로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bullet \text{REM} = -0.5031 + 0.0861 \ln(\text{POP}) + 2.8247 \ln(\text{SPE})^{-1}$$

- { Residual Sum of Squares=3.8031
- { Standard Deviation=0.28446
- { Multi Correlation Coeff (R<sup>2</sup>)=0.9676

回歸分析의 結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都市의 機能이 얼마만큼 特化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그 都市의 成長潛在力을 決定하는 重要한 變數가 된다. 따라서 過去에 흔히 地方中小都市를 活性

화시키기 위해서는 特定工業機能에 特化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長期的인 觀點에서 보면 成長의 潛在力이 低下될 憂慮가 크다.

특히 地方中小都市가 脆弱한 經濟基盤위에서 무조건 特化시킬 경우 産業의 波及效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專門化는 需要의 變化나 景氣沈滯時 構造的 不況을 겪게 될 危險性이 크다.

따라서 都市의 機能的 性格과 成長潛在力의 關聯性은 地域政策이나 産業政策의 實施에 있어서 有用한 情報를 提供해 준다.



〈表 III-8〉

特化係數와 地域雇傭乘數

區分 都市別	人口規模 (POP)	特化係數 (SPE)	地域雇傭乘數		區分 都市別	人口規模 (POP)	特化係數 (SPE)	地域雇傭乘數	
			(REM)	(REM)				(REM)	(REM)
서울	9,204	0.16	5.68	5.73	경주	130	0.37	2.57	2.59
부산	3,395	0.22	4.13	4.28	강릉	126	0.43	1.98	2.03
대구	1,959	0.27	3.69	3.50	진해	122	0.29	3.23	3.32
인천	1,220	0.25	3.87	3.23	구미	121	0.47	2.02	2.32
광주	843	0.34	2.78	2.79	충주	120	0.44	2.14	2.16
대전	800	0.20	5.74	4.81	순천	118	0.49	1.93	1.94
울산	507	0.43	2.25	2.13	안동	111	0.36	2.61	2.66
마산	424	0.30	3.26	3.19	충무	83	0.32	2.88	3.01
성남	417	0.27	3.42	3.55	김천	76	0.32	3.08	3.01
전주	410	0.27	3.40	3.55	속초	72	0.51	1.86	1.67
수원	374	0.20	4.85	4.83	삼천포	64	0.53	1.83	1.79
부천	340	0.38	2.61	2.51	광명	198	0.18	5.15	5.40
청주	305	0.18	5.02	5.38	창원	143	0.17	1.35	1.32
안양	292	0.19	5.29	5.09	태백	117	0.80	1.22	1.17
포항	244	0.50	1.93	1.90	동해	103	0.61	1.60	1.55
목포	228	0.39	2.53	2.44	계천	97	0.36	2.57	2.67
진주	219	0.26	3.70	2.87	영주	85	0.42	2.27	2.67
제주	188	0.51	1.88	1.82	서귀포	80	0.53	1.80	1.79
이리	182	0.34	2.89	6.82	경주	77	0.45	2.13	2.22
군산	180	0.43	2.30	2.22	김해	76	0.36	2.65	2.67
여수	175	0.43	2.16	2.22	동두천	69	0.30	3.42	3.21
춘천	165	0.36	2.61	2.42	송탄	65	0.33	2.87	2.96
천안	152	0.28	3.34	3.42	나주	61	0.48	1.98	1.98
원주	147	0.32	2.86	3.01	남원	61	0.29	3.19	3.32
의정부	145	0.30	3.19	3.07	영천	53	0.44	2.18	2.71

IV. 結 論

우리나라의 都市成長過程을 돌이켜보면 制限된 技術과 資源으로 全國을 동시에 均衡開發한다는 것은 事實上 어려운 일이었으며 階層擴散의 過程을 통하여 大都市에서 中間都市로, 中間都市에서 小都市로 成長效果를 波及시키는 政策을 堅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成長果實의 波及이 期待한 만큼 順調롭게 擴散되지 못했으며 結果的으로 中小都市와 大都市開의 격차를 深化시켜 왔다.<sup>23)</sup>

그러나 1970 年代末을 고비로 地域間的 隔差와 大都市로의 人口集中은 다소 完化되고 있으며 소위 集中反轉(polarization reversal)現象이 나타나기 始作하고 있다. 따라서 H. Richardson 教授가 指摘하고 있듯이 이러한 時期에 中小都市開發政策을 推進함으로써 均衡成長의 目標을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으며 이 研究論文의 研究目的도 같은 脈絡에서 理解될 수 있다.

1970 年代末 「小都邑機能活性化政策」에서도 經驗했듯이 中小都市의 機能의 特性과 成長潛力에 대한 因果論的인 分析이 先決되지 않고는 中

23) 劉甲壽, 「國土開發論」(서울: 建設研究社, 1976), p. 136.

小都市開發政策이 成功的으로 達成될 수 없다.<sup>24)</sup> 따라서 이 研究는 中小都市의 機能의特性和 成長潛在力을 分析하여 機能活性化를 위한 産業基盤的 政策方向을 모색하려는 의도하에서 提起되었다.

우리나라 中小都市 機能活性化를 위한 都市機能과 成長潛在力의 開發은 그 都市 特性의 존중과 지역隔差의 正確한 認定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첫째, 大都市의 경우 都市機能이 다양화되어 있어 機能의 集中度가 낮으나 中小都市는 一般的으로 機能의 集中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떤 産業에 特化되어 있는가 하는 點은 당해 都市의 成長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長期的인 觀點에서 볼때 一部都市의 지나친 專門化는 機能衰退의 위험이 큰 바, 特定財貨에 대한 購買力의 減退나 個別 地方都市의 特性에 알맞는 單一機能의 育成政策은 再考되어야 한다.

둘째, 成長要因의 分析結果를 보면, 中小都市

24) 鄭址雄外, 「地域社會開發論」(서울: 鮮一文化社, 1983), p. 448.

의 경우 麗水, 鎭海, 龜尾, 裡里, 忠武, 三千浦 등 6個都市를 제외하고는 地域成長示差가 높은 産業은 都小賣業, 서어비스業 등 非製造業部門이며 이들 6個都市중에서도 鎭海와 龜尾를 除外하고는 모두 飲食料業이나 其他製造業 등 成長率이 낮은 産業에 成長示差가 높아 中小都市가 沈滯하고 있는 原因이 되고 있다.

세째, 都市規模와 經濟基盤乘數는 “正”의 相關關係가 있어 大都市는 成長의 波及效果가 크나, 中小都市는 成長의 潛在力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年度別로 보아도 基盤乘數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中小都市의 沈滯는 構造的인 側面을 지니고 있다.

네째, 都市機能의 集中度, 즉 特化係數와 基盤乘數는 相互逆比例關係를 나타내고 있어 都市機能이 特定産業에 지나치게 集中되면 長期的으로 볼때 成長의 潛在力이 떨어지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短期的으로는 地域特性에 알맞는 機能을 選別하여 育成시키되 지나치게 專門化시키는 政策은 止揚되어야 하며 長期的으로는 基盤乘數를 높일 수 있도록 機能을 多樣化시켜야 한다.